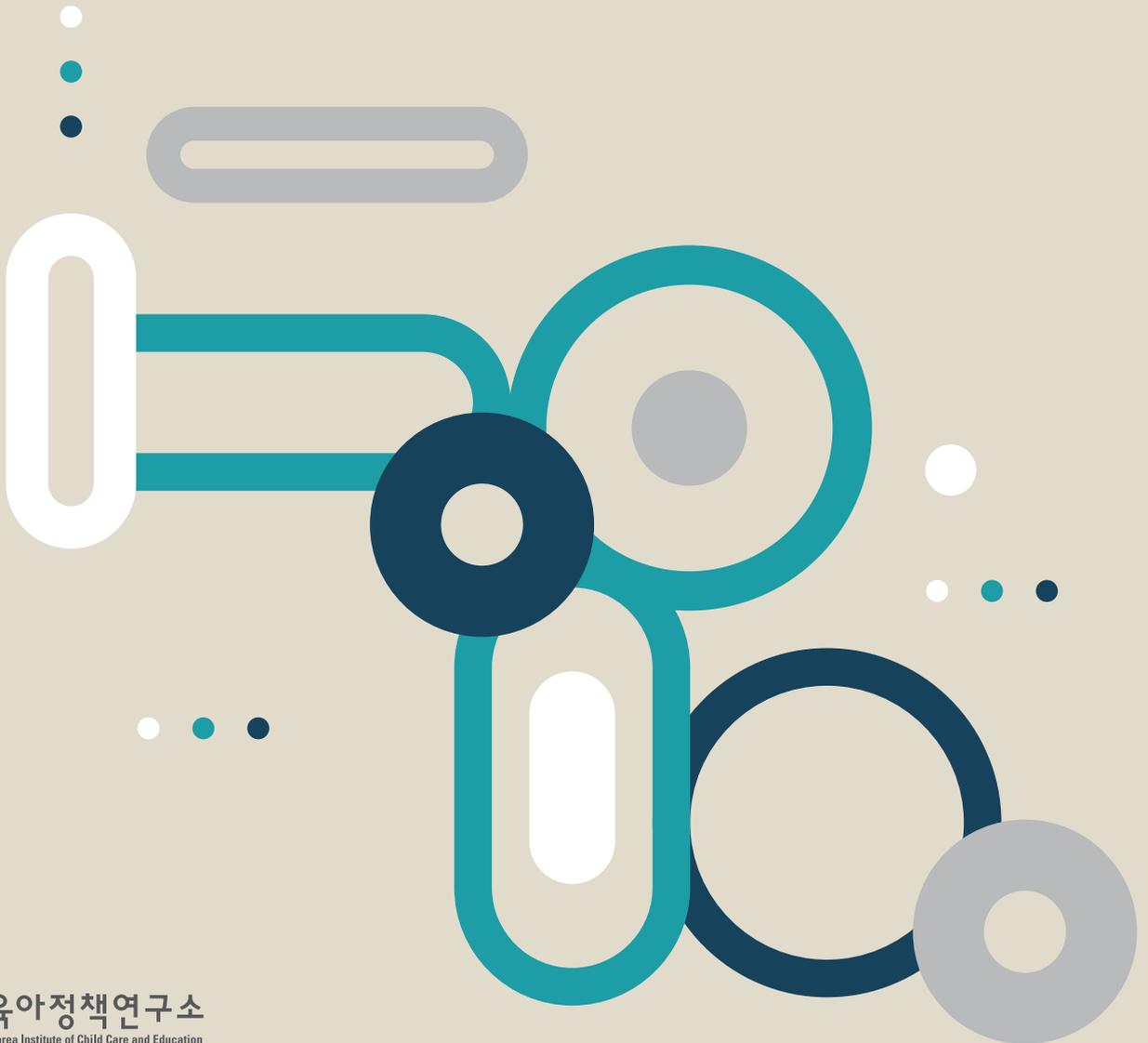




2021년

#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입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제1차 육아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에는 육아지원기관 지원, 제도 개선, 가정 양육 지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57개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은 정책 수요자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생겼다는 것에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육아정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소에서 추진한 육아정책제안 공모전 제안서를 보내드리오니 정책 기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는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밀착형 육아정책연구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드림

# CONTENTS

## 01 유아교육·보육 기관지원

---

- 1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지원 시스템 마련
- 4 소인수 병설유치원 상생 방안
- 7 어린이집 순회방문지도사업
- 10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사업

## 02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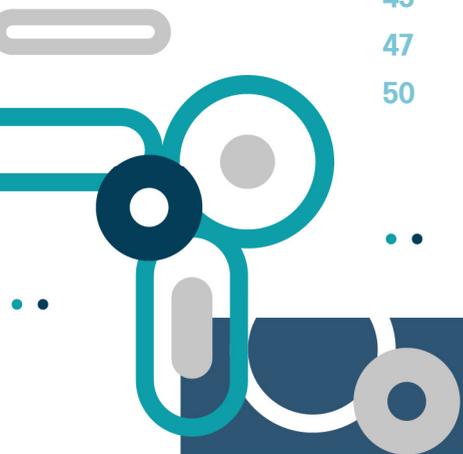
---

- 15 1교실 2담임, 업무분장에 따른 주별 순환근무제도
- 18 보육교사 육아휴직 지원 정책
- 20 보육교사 육아휴직 지원 정책
- 22 교사 존중 아이사랑 'CCTV'
- 25 민간·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2교대 근무지원
- 29 "나야나~~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아동학대 예방

## 03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지원

---

- 35 생태친화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버스 차량 대여 지원 사업
- 38 동네 별 주민 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육아수업 확장 방안
- 40 보육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 43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체험활동 공백 - 프로그램·자료 지원 사업
- 45 우리 함께 놀아요. - 놀잇감(도서) 대여 프로그램
- 47 순환 도서 대여제 (오늘은 그림책 놀러오는 날!)
- 50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



## 04 유아교육·보육 제도개선

---

- 55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수립
- 58 모두가 행복한 키움의 공간
- 61 '인.공.지.능. 보육'
- 65 아동수당의 지원확대, 장애아동 반별 아동 비율 축소로 보육의질 향상, 특수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
- 68 어린이집 순회방문지도사업
- 70 다(多) 행복 희망 정책 제안
- 82 전 연령 교사 대 영아비율 축소
- 85 영아보육 서비스 재고 (축소 운영 및 시간제보육 개선)
- 87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육·보육의 통합접근 사업
- 89 즉시 입소 가능 어린이집 찾기

## 05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

- 93 영아놀이지원 실현 <영아놀이지원비>
- 96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인한 보육공백 해소
- 98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산정방식 개선 필요

## 06 유아교육·보육 취약계층지원

---

- 103 (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안전 팔찌)' 지원 사업
- 107 경계성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사지원

# CONTENTS

## 07 양육지원

---

- 111 가정 양육 지원: 부모교육 내실화
- 114 부모 교육
- 116 다자녀 플러스 꾸러미
- 118 통합적 부모교육
- 121 양육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증시한, 맞춤형 지역기반 육아SNS '편키포키'
- 124 '나는 부모다' 부모교육 의무제
- 127 산후조리원의 재원 부모 대상, 정서조절 및 양육 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 131 다자녀 가정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 135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비부모/부모교육
- 138 부모교육 의무화 \_ 똑똑한 부모, 공부하는 부모

## 08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 143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 146 아동 존중은 건강한 사회의 첫걸음
- 149 아동학대 예방 내실화 방안
- 152 아동 보호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 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자금 조성 방안
- 155 함께하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 추구 (어린이집과 부모연계)



## 09 건강지원

---

- 161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 (마음건강 프로젝트)
- 164 건강지원(응원해! 도전해!)
- 167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 170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예방·치료 프로그램 : “요술항아리에 담긴 무지개 언어”
- 173 코로나19 및 이후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한 보육공백 없애기(지속적인 보육)
- 176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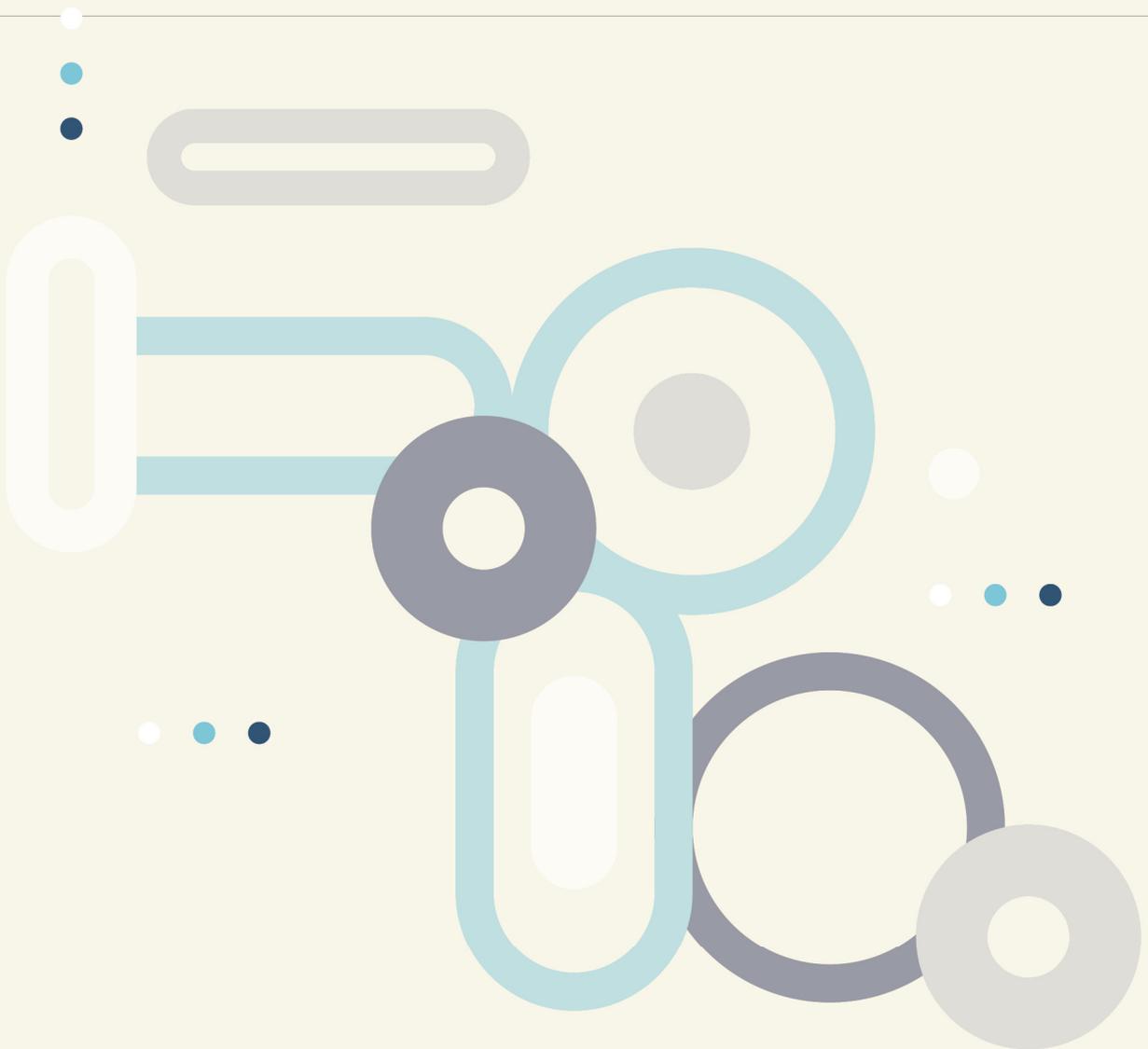
## 10 초등지원

---

- 183 초등돌봄과 보육의 연결
- 185 비대면 시기, 아이들의 활동을 넓히는 e방과후 교실 운영
- 188 ‘2019 개정누리과정’이 학령기에 미치는 영향(종단 연구)
- 190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만족도 평가 도입

육아정책연구소

#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 1

## 유아교육·보육 기관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지원 시스템 마련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기관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출산율의 저조와 환경문제로 인하여 보육수요가 줄면서 어린이집의 운영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채용하여 운영 시 경제적인 비용이 크게 들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 특히 소규모의 어린이집에서 조차 간식과 점심 식사준비를 위하여 한사람의 귀한 인력이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 인력의 낭비가 큼니다.
  - 식사준비와 뒷정리시간 이외에는 마땅히 대기할 장소도 없어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업무로 제한하기에
  - 보육도우미가 배송 오는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환경문제로 지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날마다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와 식재료를 담았던 용기로 인한 쓰레기문제와 새벽마다 배수를 일일이 해야 하는 하는 업체의 어려움을 생각해야합니다(새벽배송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 찾기 힘든 식재료(우엉, 연근이나 밤 등)나 빵이나 떡 등은 하나라도 빠지면 이른 아침부터 식재료를 찾고 사기위한 손길이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어린이집처럼 주방을 공유하는 사업을 제안해봅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여 식재료의 낭비를 줄이며 조리사의 입맛에 따라 맛과 양이 정해지는 비과학적 요인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 새벽에 배송 오는 인력 대신에 정해진 시간에 조리된 반찬과 간식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각 원마다 배치한 조리사 대신에 보육도우미를 활용하여 육아와 급 간식 배식에 활용한다면 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교사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조리사와 급 간식 식단 및 조리과정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해야했던 주방의 면적을 기타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 40인 미만의 민간어린이집
- 40인 이상의 민간어린이집
- 40인 미만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사지원이 없고 국공립의 경우 조리사지원을 100%지원받고 있으니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이를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사업의 지원 내용

- 현행의 공공급식지원시스템에 조리기능을 첨가하여 완제품으로 배송
- 냉장차등 필요
-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급 배식 제공
-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 줄이기 동참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 ●● 사업의 차별성

- 공공급식도 좋은 제도이지만 김치처럼 완제품을 배송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의 낭비와 일관성 없는 맛과 염도 등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어린이집인력의 배치를 능률화시키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 조리 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과 냄새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경비의 절감화
- 식생활의 안정성 강화
- 회계의 투명성강화
- 업무량의 감소

### ●● 시행기관

- 지방자치기관

# 소인수 병설유치원 상생 방안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기관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출산율 감소와 도심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농어촌 유치원의 급격한 유아수 감소.
  - 병설유치원의 원아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존립의 문제 발생.
  - 소인수 학급 및 휴(폐)원의 급격한 증가
  - 잇다른 휴(폐)원시 교원의 인사 이동 문제와 휴원 된 교실 및 교육 자료의 방치
- 코로나로 인한 대집단 교육 환경의 문제
  - 대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지속적인 등원이 어려움.
  - 소인수 학급의 유아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 부족.
  - 직접경험이 중요한 유아기에 실내 활동 위주로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소인수 학급 및 휴(폐)원 예정인 병설 유치원
  - 4인 이하 소인수 학급의 병설 유치원
  - 향후 3년간 취원 유아가 없는 유치원
- 농어촌 유아 및 도심 과밀 학급의 유치원 원아 및 학부모
  - 시, 군 단위의 유치원 원아 및 학부모
  - 농어촌 단위의 유치원 원아 및 학부모

## ●● 사업의 지원 내용

- 4인 이하 소인수 병설유치원을 도심의 병설유치원에 합병
  - 도심의 병설유치원이 농어촌 소인수 병설유치원의 교구, 교육기자재, 비품 등의 자산을 인수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게 함.
  - 인수 받은 유치원은 휴(폐)원된 유치원을 활용하여 제 2의 교실 또는 행사장소, 체험 장소로 적극 활용.
  - 각 지역 내 합병된 유치원들은 각 지역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등록하고 관리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융통적으로 사용
  - 코로나 상황이 심각 단계일 경우 자체적 기준을 세워 원아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배치.
  - 도심의 교사와 농어촌 교사가 두 명의 담임으로 존재하여 일반적일 때는 한교실에서 유아들을 함께 돌보 고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는 분원으로 나누어 배치
- 소인수 학급 및 휴(폐)원 예정의 유치원 교사를 합병된 유치원으로 배치함.
- 등하교 지원
  - 농어촌 특성상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스쿨버스 지원
  - 스쿨버스 이용이 어려운 병설 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현장 학습 시에도 이용하도록 지원

## ●● 사업의 차별성

- 원아 모집의 어려움 해소
  - 기존까지는 원아 모집이 교사의 문제이고 지역 교육 지원청은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참여했다면 이제는 유아교육의 시급한 문제점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임.
- 초등의 어울림 학교와 차별화
  - 초등에서는 '어울림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공동 학구 제도를 운영함으로 학구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구 제도가 없는 병설 유치원의 휴(폐)원 위기에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음. 따라서 농어촌 소인수 학급 및 휴(폐)원 유치원과 도심 유치원의 합병이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것임.

## ●● 사업의 기대 효과

- 향후 인구 절벽이 미치는 교육 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 대처
  - 유휴 교실 활용 및 코로나 시대에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
  - 풍부한 병설 유치원의 교육 환경 및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분원 형태의 운영으로 교육 예산 절감 및 예산 활용의 효율성 증대

-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농어촌 유아와 도심 유아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 반에 두 명의 담임 배치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질 높은 놀이 지원을 할 수 있음.
- 두 명의 담임이 서로 관찰자가 되어 아동 학대 예방
- '휴원 또는 유치원 유지'라는 단편화된 문제해결 방법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유아교육의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 마련
- 병설유치원 교사의 부담감 감소
  - 농어촌에 근무하는 소인수 학급의 병설유치원 교사의 원아모집의 어려움 해결
  - 두 명의 담임이 있어 교사의 업무 부담감 감소 및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실시
  - 단설유치원의 장점을 갖게되고 병설유치원의 단점을 보완하게 됨.

### ●● 시행기관

- 교육부
- 각 시도교육청
- 지역 교육지원청

# 어린이집 순회방문지도사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기관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체계적이고 철저한 어린이집 지도 기대
  - 일부 어린이집에서 문제(아동학대, 급 간식 사고 등)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한 대비 혹은 해결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징벌, 형벌적인 지도, 점검이 일시적으로 진행됨.
  -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지자체와 어린이집이 상생하며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순회방문을 통한 '장학' 개념의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도가 요구되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희망
  -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처벌함으로써 본보기식 지도를 진행하였기에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임.
  - 어린이집 교직원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희망하며 사업을 제안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 지자체 지도점검이 아닌 순회방문지도를 통해 전문가의 주기적, 정기적 방문으로 어린이집 운영 시 부족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음.
  - 평가제 외 각종 지자체 점검을 준비하며 보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
- 지자체 담당 공무원
  - 담당 구역의 어린이집에서 문제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한 순회방문사업 담당자와 협의 및

협조 요청이 가능하며 정기 점검, 불시 확인 점검 시 담당 구역 내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업무 효율화,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담당 구역 내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행정명령 개소 수 감소).
- 지역사회 내 보육 교직원(보육전문요원, 아이사랑꿈터장, 아이돌봄센터장)
  - 어린이집 지원 업무에 참여하며 본업과의 협업을 도모할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내용

- 2달에 1회 혹은 분기별 1회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안전/위생, 보육과정/환경 부분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시행
  - 안전/위생 안내서에 따라 순회방문사업 담당자가 점검하고 교직원 교육 실시
  - 보육과정/환경 부분에 대한 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 실시
- 안전/위생, 보육과정/환경 부분에 대한 점검 후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시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유도
  - 다수의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유도
  -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임.

### ●● 사업의 차별성

-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지도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제 컨설팅, 회계컨설팅과 같이 점검과 체제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지원과 지도가 아닌 안내서에 따른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 도모
  - 보육 관련 체계와 법이 변할 때 그에 따른 교육을 순회방문 시 진행하여 보육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 가능
- 지자체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이 아닌 보육계의 노력을 통한 질적 개선 추구를 도모
  - 기존 지자체에서 지도점검 진행 후 점검결과에 대해 행정명령 등으로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형벌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보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을 도모

### ●● 사업의 기대 효과

-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 추구
  -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음으로써 어린이집 자체의 보육 질 향상 효과
  - 어린이집으로 인한 이슈 감소,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회복 기대
- 효율적인 행정력 사용
  - 시행 시작단계사업인 아이사랑꿈터장, 아이돌봄센터장 등도 전문 보육 인력임에도 업무 능력에 비해 담당 업무가 아쉬운 상황. 해당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 인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순회방문지도사업 담당자가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중재자로 활동하며 국가사업인 영유아보육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 부모모니터링 사업 시 전문가 인력에 대한 비용 불필요(자체점검만 시행해도 충분함)

### ●● 시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이 안내서를 개발하고 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행기관**이 되어, **아이사랑꿈터장, 아이돌봄센터장, 담당 보육전문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관리, 담당 지정**

#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사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기관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보육교사 공백 시 보육 전담교사 부족
  - 교사의 병가 등 긴급사유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긴급파견 신청이 어려움.
  - 원 운영상 자체 대체교사를 상시 채용하기 어려움.
- 보육교사의 연차 보장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 보육공백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연차 보장이 어려워 여름, 겨울 집중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보육교사의 연차, 월차를 보장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 지원, 미지원 시설을 나누지 않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필요시 비담임교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 사업의 지원 내용

- 어린이집의 상시 근로 보육교사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0인 이하는 비담임교사 1명, 10인 이상은 2명을 지원해 1인 15일~20일의 연, 월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비담임교사의 사용자부담금 전액 지원
  - 인건비 외 4대 보험, 퇴직적립금 100% 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이 원 운영 형편상 사용자부담금으로 인해 보조교사 등 지원을 포기하는 실정으므로 사용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비담임교사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 사업의 차별성

-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으로 급여 보장
  - 연장반 전담교사, 영아 보조교사 지원은 1일 4시간 근무로 인해 취업률은 높였으나 보수가 안정적이지 않아 겸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비담임교사는 항시 근무로 급여를 보장받고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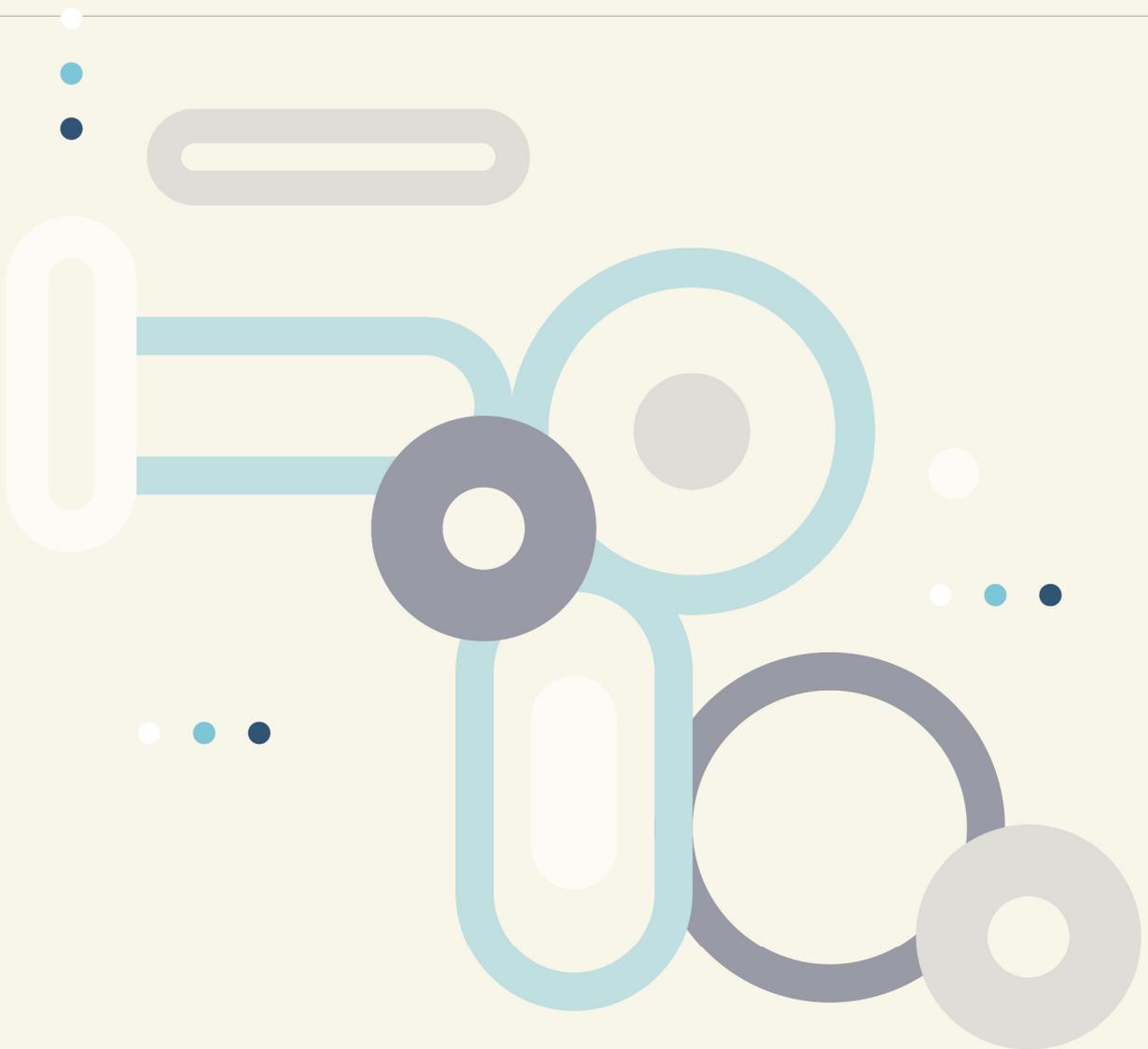
- 보육교사 일자리 창출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 및 퇴직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재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담임교사의 연, 월차 보장
  - 여름, 겨울에 집중되었던 보육교사의 연, 월차 사용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 보육교사 집중휴가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비담임교사의 전담 배치로 바쁜 일과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프거나 다친 원아의 돌봄이나 감염병 유증상 원아의 격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 전국의 어린이집에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 2

##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 1교실 2담임, 업무분장에 따른 주별 순환근무제도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교사의 근무환경개선
  -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 중 서류 및 활동 준비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함.
  - 활동을 위한 수업준비, 활동을 마친 후의 평가와 가정 연계 및 피드백(아동 관찰일지, 보육일지, 알림장, 상담일지 등), 교실 청소 및 위생 점검은 교사의 고유 업무임. 근무시간 내에 이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절 시간을 보장해야 함.
  - 현재 교사의 업무시간은 “9~16시 보육활동, 16~17시 하원지도, 17~18시 서류, 수업준비, 청소”로 교사의 야근을 부추기며, 낮잠시간 중 휴게는 실효성이 낮음.
  - 업무강도를 낮추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나 서류 간소화가 주장되지만 이는 한계가 있음. 어찌되었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8시간(휴게시간 포함)이고 그 외 기타 등등의 업무를 1시간에 해야 하기에 구조적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충실한 보육시간 보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 보육시간에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여 온전히 아이들과의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동발달과 아동학대예방에 도움이 됨.
  - 보조교사로는 한계가 있기에 담임교사를 통해 책임감 있는 보육활동을 보장해야 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보육 교사
  - 적절한 업무시간 분배로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교사들이 가장 힘들다는 점심식사 시간과 낮잠시간 초반(12시~14시)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행 대

비 1/2로 줄어들며, 아동관련 서류 업무 역시 1/2로 줄어듦.

- 교사 합의 후, 연차 사용 시에는 주 보육시간이 오후일 경우로 한정하여 대체교사 업무인수인계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 영유아

-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심식사 시간과 낮잠시간 초반(12시~14시)에 두 명의 담임교사와 함께함으로써 순간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져 돌봄을 받는 퀄리티가 높아짐.

- 어린이집

- 주 보육시간이 오후 시에만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으로 합의 후, 대체교사를 12시~17시 30분 채용으로 인건비 절약이나 보조교사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내용

- 1교실 2담임 주별 순환근무제 정책화

- 교사의 업무시간을 2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여 법적·구조적으로 정책화
- 1st 교사의 업무시간 : 9시~14시 보육활동, 14시~15시 점심 및 휴게, 15시~17시 수업 준비 및 서류 업무, 17시~18시 회의, 당직근무 및 청소
- 2nd 교사의 업무시간 : 9시~11시 수업 준비 및 서류 업무, 11시~12시 점심 및 휴게, 12시~17시 보육활동, 17시~18시 회의, 당직근무 및 청소

- 담임교사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는 교실 운영의 결정권과 책임에 한계가 있기에 교사의 업무를 낮춰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보조교사를 증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담임교사를 증대하는 쪽으로의 정책 선회가 필요함.
- 보조교사 지원을 줄이더라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 ●● 사업의 차별성

- 탄력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 만1세를 예로 현행 1:5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9시~12시, 14시~17시는 동일함.
- 12시~14시 사이는 2:5가 되어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심시간과 낮잠을 재우는 시간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행 대비 1/2 됨.

- 충분한 수업준비를 통한 충실한 교육 및 보육 활동 실행

- 수업준비는 해야 하는 것이기에 현재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에 틈을 내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이 제도를 통해 낮잠을 빨리 재우기 위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거나 보육시간에 아이를 살피지 않아 아동 부상 등이 발생하는 현행 구조를 고칠 수 있음.

• 교사 근무환경 개선

- 교사가 실제적으로 서류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실제적으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현행 보육업무시간 규정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거나 서류를 간소화하는 정책들이 교사의 업무강도를 일정부분 낮춰주는 하겠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휴게 시간이나 서류업무시간, 청소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음.

- 1교실 2담임 주별 순환근무제도를 시행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1:5는 하루 3시간이므로 충분히 보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음.

●● 사업의 기대 효과

• 교사 근무환경 개선

- 교사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근무를 개선하고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

- 통계적으로 빈번한 아동학대 발생시간에 담임교사 수를 늘림으로써 아동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운영의 질(quality) 향상

- 책임감 있는 교사들의 학급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기대함.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며 법적으로 담임교사를 추가 채용하여 한 교실 2담임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장반을 만들며 교사 업무시간을 공시했듯이 담임교사의 2가지 업무분장과 실행시간을 법으로 규정해야 함.

•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선 · 시행해야 함.

# 보육교사 육아휴직 지원 정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 지원
  - 연령마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데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특히 0세는 만 1, 2세와 같이 혼합할 수 없어 늦게 가는 연장반 아이들도 교사가 보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 학부모
  - 영유아

## ●● 사업의 지원 내용

- 연령별로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를 더 지원해주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케어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사업의 차별성

-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 연장반교사 비율이 적은 데 더 지원해줌으로써 보육교사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도울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연장반이 더 많을수록 늦게 가는 아이들의 부모들의 마음도 편히 말길 수 있을 것 같음.
  - 특히 아기는 많은 도움과 손길이 필요하여 연장반 교사를 늘려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원에서는 부담을 적게 느끼고 편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줌.

### ●●● 시행기관

- 보건 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보육교사 육아휴직 지원 정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를 하는 보육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는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거나, 돌보아줄 성인이 없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임신, 출산 등으로 육아휴직을 한 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나이나 높은 교사의 연차에 따라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부모의 출근으로 장시간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기관에 맡겨지거나 다른 성인에게 맡겨질 경우 영아들의 정서적인 불안, 애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많은 업무와 야근으로 퇴근이 늦어질 경우에는 장시간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
  - 어린이집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원장 및 담임교사들에게 적용 되어야 한다.
-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
  - 어린이집과 늘 연계되어 일을 해야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도 확대 적용 되어야 한다.

### ●● 사업의 지원 내용

- 육아휴직 기간 3년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 육아휴직 기간 50% 이상의 월급을 지원한다.
- 교사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은 연 단위로 교사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 대체교사 지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 ●● 사업의 차별성

- 현 어린이집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실시되는 부분
  -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3년으로 확대 실시 적용한다.
- 육아휴직 기간 대체교사 인건비 적용
  -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체교사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어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교사들에 대한 부분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좀 더 안정적으로 결혼·출산을 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자녀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교사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덜어질 수 있다.
-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 및 원 운영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 시행기관

- 가정,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

# 교사 존중 아이사랑 'CCTV'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 CCTV의 목적 및 현황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및 제 15조의 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1일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해 모자이크 처리 등 절차 없이도 보호자가 원하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적시했으며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 • CCTV 목적의 다양화

- 아동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의 CCTV가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무분별하게 의심, 추측으로 열람을 요구함에 따라 CCTV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구 A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학대의 심 정황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세종 보육교사 학대 누명 사건' 학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운영이 힘들어진 원장의 권유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열마 후 자살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개인적 감정과 정황상의 추측과 의심으로 CCTV 열람이 이루어지는 점, 학대와 관련한 정황이 없을 경우 교사에 대한 사과,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부모의 알권리, 아동 존중에 비해 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정책을 제안한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시/도 지자체

## ●● 사업의 지원 내용

- CCTV RMA
    - 아동 안전, 아동 학대 의심 등의 여러 사안으로 CCTV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원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CCTV 열람 전에는 학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 안내한다.
      - ① Return(신고)
 

CCTV 열람 전 아동 인권, 교사 인권을 바탕으로 열람 내용에 대해서는 유포하지 않는다. 만일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린다.
      - ② Measure(조치)
 

아동학대의 경우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헛소문을 SNS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퍼뜨리는 등 교사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경우 어린이집 퇴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에 대해 명시한다.
      - ③ Advertising(광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교사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가 이루어져 아동과 학부모의 인권과 알권리와 더불어 교사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CCTV 확인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이 제일 중요함에 대해 알린다.
  - 보육교사 심리센터 운영
    - 아동 안전, 아동 학대 의심 등의 여러 사안으로 CCTV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원장은 학부모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의 의견과 다르게 CCTV 상 교사의 학대가 발견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의심과 추측으로 2차 피해 혹은 보육교직원의 심리 정서상 어려움에 직면 할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보육교사 심리센터'를 운영하여 교사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심리 상담을 받거나 마음 안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마음 성장 프로젝트'의 성과와 이점을 CCTV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심리상담에 참여하는 교사가 있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활용 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다.

### ●● 사업의 차별성

- 시/도 자치단체 협력
  - 보육공백 및 교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 지자체 별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타 지역이 아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언제나 보육교사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무고, 2차 피해 등의 여러 교사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교사 역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부모들도 CCTV열람과 관련할 경우 지켜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개인적 감정으로 열람하는 데 현재보다 줄어 들 것으로 생각 든다. 보육교사의 직업상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학부모, 아동들을 만나며 지속적인 보육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시/도, 원장의 협조를 통해 '보육교사 심리센터'를 이용하고, 보육공백의 부담을 대체교사 활용이라는 방법은 통해 교사들이 상담가에게 마음을 털어 놓으며 공감과 이해를 받는 등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 시행기관

- 보육시설, 유치원

# 민간.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2교대 근무지원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어린이집 운영시간 대비 짧은 보육교사 근로시간
  - (현행)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을 기본원칙으로 함.
  - (현행) 보육교사의 기본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포함 4시간30분 또는 9시간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초과 근무시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비해 보육교사 근로시간이 짧아 4시간의 공백이 발생됨.
  - 해결을 위해 현 정부에서는 오전 또는 오후 원 자체적으로 당직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연장전담교사를 배치 지급조건 또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연장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애매한 연장반교사의 근무포지션으로 이월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임.
- 실패한 연장보육 정책 그리고 늘어난 보육교사의 실 보육시간
  -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지원이 추가되었지만, 애매한 근무시간으로 지원자가 없어 인력수급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음.
  - 연장보육 지원체계에서 명시된 담임교사의 보육시간 외 2시간(1시간휴게, 1시간잔업)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 사용 및 잔업을 수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
  - 기본보육시간을 5시까지로 명시해두어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보육교사의 경우 휴게시간과 잡무시간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함.
  -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교사의 연구시간을 요구하지만, 휴게시간 및 잡무시간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자체가 불가능함 .

## ●● 사업의 지원 대상

- 민간.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누군가의 부모로 9시간 근무에 초과근무까지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임, 그렇기 때문에 출중한 실력을 보유한 교사라 하더라도 자녀양육을 위해 보조교사 또는 연장반 교사 포지션으로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담임교사의 막대한 업무량과 막중한 책임감 대비 낮은 급여체계는 교사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보통합 또는 급여체계 일원화 대신 12시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민간과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교대 근무를 지원한다면 보다 더 짧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수요자로 하여금 적절한 근무여건을 제공하여 국공립 또는 직장어린이집 유형의 지원 과밀화 현상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직장 어린이집 원장
  -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화된 포지션으로 다양한 영역의 경쟁에서의 부담감 및 역 차별해소
  - 보육교사 2교대 근무로 당직근무 요구 및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부담감 해소
  - 안정적인 보육교직원 확보로 정상적인 보육교사 연차휴가 제공이 가능함.
-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춘 근로시간 설정은 12시간 운영을 보장하고 오전, 오후 모두 담당교사의 책임보육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여건 조성
  -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직장 맘과 전업 맘 사이의 지원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필요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 해결

## ●● 사업의 지원 내용

- 민간. 직장 어린이집 연장전담 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및 담임교사 근로시간 재조정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민간유형 12시간 국공립유형 9시간으로 재조정
  - 담임교사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하여 민간유형 6시간30분 (오전근무7:30~14:00 / 오후근무13:00~19:30), 국공립유형(9:00~18:00) 9시간으로 재조정
  - 민간유형의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폐지
  -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유지
  - 민간유형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4대보험료 반액지원 및 보육료 인상 또는 급여체계 일원화
-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직장 유형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차별화
  - 어린이집 유형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직장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수요를 흡수 국공립유형의 어린이집과 차별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유형에 따른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부여

- 공약이었던 국공립화가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 차별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예산부족으로 민간자본으로 일구어 낸 현 보육사업의 역군들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퇴출수순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함.

### ●● 사업의 차별성

- 보조교사 및 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지원정책
  - 현 교사 대 아동비율에 의거 보조교사 지원인원 및 지원금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연장반 교사의 경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움. 연장반 운영에 따른 아동의 실보육시간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의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 등은 모두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온전히 떠안고 있는 상황임.
  - 보육교사 2교대 시행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12시간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요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양육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움
  - 보육교사 2교대 시행은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의 이탈 대신 정교사로의 전환을 통한 소속감, 직무능력 향상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대신 민간영역의 어린이집의 차별화된 포지션과 질 제고를 통한 사업비 감소효과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 대비 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유형의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수요자인 학부모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한민국 학부모의 팽배한 사교육 선호현상으로 인해 막연한 국공립전환은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추세로 인해 사용되는 공적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사업의 기대 효과

- 12시간 보육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
  - 보육교사 2교대 시행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12시간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요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양육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움.
  -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근무시간에서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보육교사 또한 양육과 일을 양립할 수 있음.

- 보육교사의 업무량 경감에 도움을 주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재 보육교사는 실질적 업무시간인 9시간을 대부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음.
  - 이러한 보육교사의 초과근무는 보육의 질 저하에 큰 요소가 됨.
  - 한 명의 교사가 모두 책임져야 했던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두 명의 교사가 함께 책임지는 업무방식으로의 변화는 교사의 업무량 경감뿐만 아니라, 높은 책임감과 희생을 요구받던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직장만족도를 높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시행기관

- 본 사업은 안정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워킹 맘과 전업 맘의 지원격차를 줄이고, 보육교사들의 불합리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 그 어떤 저출산 정책에도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만한 저출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각 부처에서 시행논의 및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나야나~~ 보육전문가”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아동학대 예방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20년 인천 서구 구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1년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및 포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어린이집에서만 유독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와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예방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15년 어린이집의 보육실 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기관의 아동학대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교사의 적정 근무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교대 근무제로 운영하여 오전 근무 담임교사와 오후 근무 교사의 인건비 지원
- 지역 육아 종합지원 센터에 기타 인력 인건비 지원
  - 지역의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행정인력 및 전문 청소 소독 인력을 정기 파견

## ●● 사업의 지원 내용

- 근무환경 개선을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교사 2교대 근무제
  - 12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2교대 근무를 하도록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서로 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는 5시간 동안 원마다 조정하여 교사 휴게 시간을 갖게 하고 그동안 부모 상담, 교육 연구 및 회의, 문서작업, 수업 준비,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사 급별 부담임제 실시
  - 현재 1급, 2급, 3급으로 나뉘져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정담임과 부담임으로 나눈다. 2급 이상의 보육교사만 정담임을 맡을 수 있게 하고 3급은 부담임으로 근무 하게 한 후 2급 이상의 자격이 주어졌을 때 정담임으로 근무하게 함.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잡무를 줄일 수 있는 기타 인력 파견 영유아들의 보육 시간이 길고 교실에 항상 아이들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 내에 청소와 보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전문 청소인력으로 해소하고 및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 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인 환경이 마련됨.
  - 회계업무, 시설관리 업무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한 교사 부담 완화 및 전문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전문 행정인력을 주 2~3회 파견

## ●● 사업의 차별성

- 어린이집 교사의 2교대 근무의 경우 기존에 한 명의 교사가 한 반을 하원할 때까지 보육하는 기존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 \* 연장반 교사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며 급여가 낮아 지원자가 적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채용이 어려움.
-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급, 2급 보육교사만 정담임으로 근무하고 3급 보육교사의 경우 부담임으로 나누어 근무하도록 하여 부담임의 경우 일정 시간 근무 경력이 생기고, 전문적인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아 승급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이 모두 해결하던 청소 및 소독 업무와 행정업무를 청소 전문 인력과 행정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파견되어 관리해 주는 것이 기존의 체계와 차별화됨.

## ●● 사업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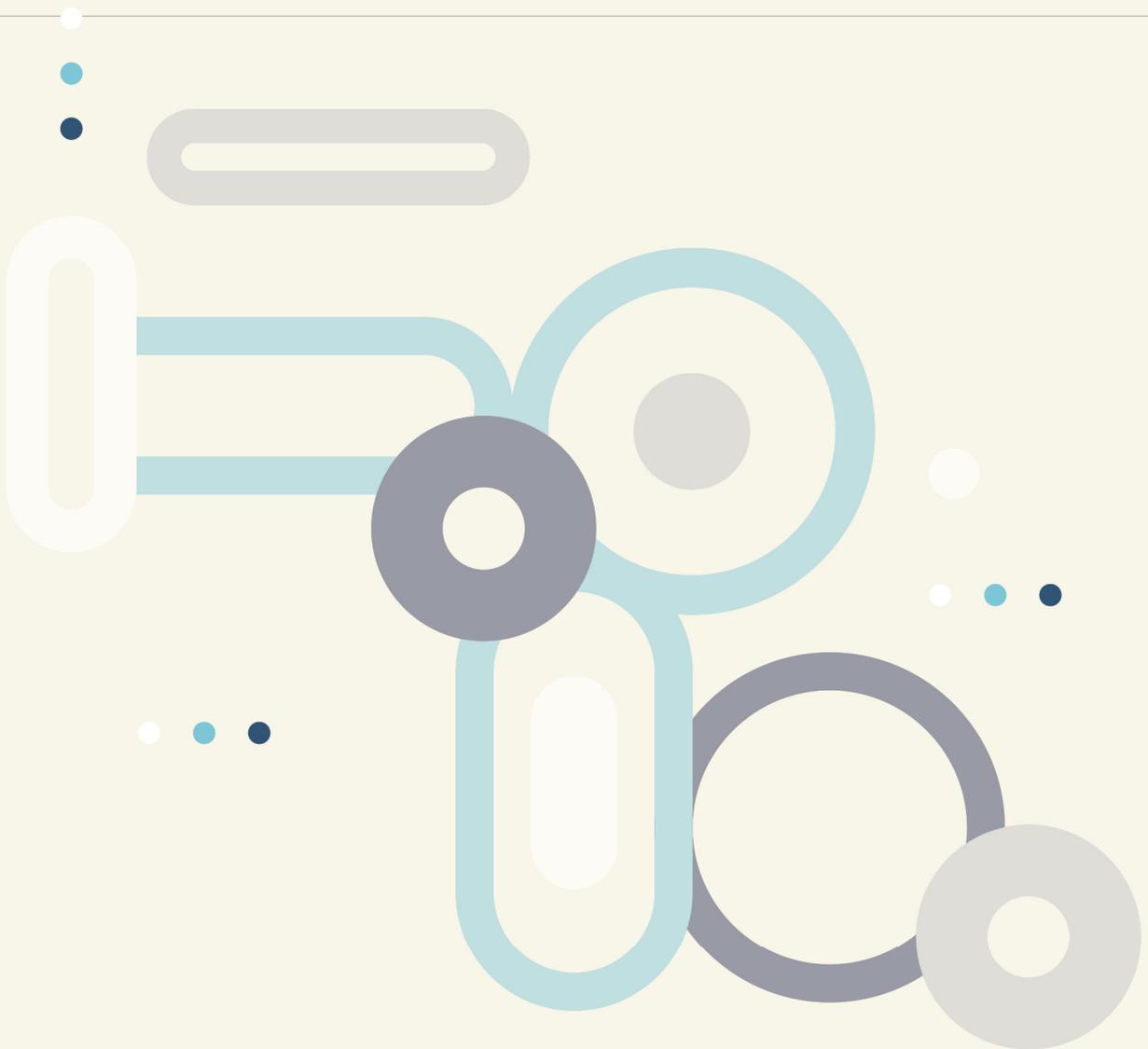
-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교사 2교대 근무제
  - 2교대 근무를 통해 교사들의 근무를 조절하여 근무 중 대면 보육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맡은 문서 업무, 부모 상담 업무, 수업 준비,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교육 참여, 연구 활동,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시간 내에 해결하게 하므로 제시간에 퇴근하여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음. 또한 근무시간 보장으로 인해 휴식 및 취미생활, 자기 계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 교사의 전문성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이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거나 마음껏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교사들이 2교대 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휴가나,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 이로 인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결국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음.
- 교사 급별 부담임제 실시
  -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므로 인해 생기는 교사들의 교육수준의 차이 및 경력에서 나오는 교수 능력 차이를 반영하여 등급별 담임 부담임제로 운영. 3급 보육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나 부담임으로 근무하면서 선배 교사의 교수 능력을 보면서 배우게 하고 추가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2급을 취득하게 함.
- 원의 투명한 운영과 보육교사들의 잡무를 줄일 수 있는 기타 인력 파견
  - 교사들의 어린이집 청소나 위생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문 청소 인력 파견으로 교사들이 근무 시간에 교육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은 전문 청소 및 소독 인력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보육을 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회계 및 문서관리, 세금관리 등을 전문 행정인력의 파견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적인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통일되고 규격화된 경기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 행정인력이 파견되어 업무처리가 가능함. 다른 시도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규격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 시행기관

- 보육교사 2교대 근무제 및 급별 정·부담임제 -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관리 및 실시
- 전문 청소 및 전문 행정인력 파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자체 사회복지과 및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진행

육아정책연구소

#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 3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지원



# 생태친화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버스 차량 대여 지원 사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생태 친화 보육에 있어 영유아들의 직접적인 자연 체험이 필요함.
  - 자연, 놀이, 아이 중심이 기초가 되는 생태친화 보육의 확대에 있어 영유아들이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 하지만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환경요인에 따라 자연을 인식하고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린이집의 위치 및 공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 자연체험 활동 시 원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간(유아 숲 체험장, 인근 공원, 산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접근성에 있어 용이하지 못함.
  -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행 금지에 따라 자체 차량이 없어 외부에 나갈 시 민간 전세버스를 대여하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영유아의 자연체험 확대를 위하여 공공버스 차량 대여 지원 사업이 실행된다면 더 많은 영유아들이 자연 체험을 정기적으로 하며 자연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여 생태 친화 보육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인 영유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됨.
-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학부모
  -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이 외부활동에 대한 버스대여 비용을 부모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원된다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됨.

- 전세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
  - 서울시와 일정 기간 및 시간에 대해 대여 및 차량을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됨.

### ●● 사업의 지원 내용

- 서울시 25개의 구마다 공공버스를 차량을 구비(및 임대 계약)하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음.
  -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 사업처럼 생태친화 보육 활동 시 신청기간이 주어져 그 기간에 원하는 어린이집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원하는 원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형평성에 맞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정된 원은 공공버스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유아 숲 체험장, 공원, 가까운 산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숲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각 구에게 관리하고 있는 인근 생태보육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각 원의 생태 친화보육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지도하고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영유아들이 스스로 자연을 체험하고 놀이를 구성하며 자연물을 탐색하는 등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친화보육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 사업의 차별성

- 기존의 현장학습 대여 차량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나 각 원의 개별 필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이 사업은 생태친화보육 및 4차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라 영유아 중심의 놀이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생태 친화 활동에 사용되는 전담 공공버스 차량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버스로 인하여 기본에 민간 전세버스를 대여하여 외부활동을 실행했던 많은 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 차량을 이용했던 원아들을 대상으로 1/n으로 비용발생에 있었는데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영유아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짐.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친화보육의 기본 기초와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놀이의 주도성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에 맞게 자연체험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각 원의 위치 및 공간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던 생태친화보육의 기본적인 환경적 요인을 일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어 영아들이 주도하고 체험하는 활동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의미가 있다.
  - 영아들은 더욱 어려서 자연친화 환경에 접근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다면 더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의미가 있다.

## ●● 시행기관

-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각 지역에 따라 생태 친화 보육 환경이 상이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접근이 쉬울 수 있어 서울시(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 생태 환경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동네 별 주민 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육아수업 확장 방안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동네에서 또래 부모들이 만날 기회가 적다.
  - 사업 시행할 경우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동네에서 모일 수 있다.
  - 아이들 역시 동네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 구에서 진행되는 육아교육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멀 수 있다.
  - 차가 없는 36개월 미만 부모는 육아 수업을 들으러 왕복 1시간 거리를 가지 않아도 된다.
  - 가까운 만큼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와 부모
  -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닌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 장애를 가진 아이들
  - 동네 주민 센터라는 접근성이 좋은 만큼 장애 아이들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사업의 지원 내용

- 36개월 미만 아이들 육아수업
  - 3~5팀 정도의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과 부모에게 지원
  - 독서, 체육, 오감발달

- 짧은 수업 후 부모 모임으로 연계
  - 20분정도 수업 후 부모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도
  - 가정양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소득 차에 따라 수업료 조절
  - 일반 가정에는 재료비와 강사비
  - 차상위나 장애인 가정에는 재료비와 강사비 지원

### ●● 사업의 차별성

-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유아수업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아이들과 부모에게 지지자와 친구가 생길 수 있다.
  -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많은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가까운 거리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
- 부모가 직접 집에서 해볼 수 있다.
  - 소규모의 수업이니 코칭을 잘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연계될 수 있다.
- 부모와 아이, 동네 친구로 연결될 수 있다.
  - 동네에 친구들과 모이다보니 자조모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시행기관

- 서울시나 각 구청, 주민 센터

# 보육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아동 심리상담 연계
  - 가정 내 양육의 문제로 인해 심리상태 불안한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필요
  - 주변 심리 상담 센터와 연계 또는 놀이치료 등 어린이집 내에서 안정된 치료가 연계되도록 전문 인력 파견
- 교사&아동 상호작용을 위한 개별 교육
  - 어린이집 내 모든 경력이 짧은 신입교사부터 경력이 많지만 잘못된 상호작용에 대한 습관이 들어 있는 교사를 위한 개별교육이 필요.
  - 아이들을 대하는 상황이 다르기에 교사 1:1지도를 통한 자신의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
- 교사
  - 교사 1:1 대상으로 상호작용 지도
- 부모 또는 주 양육자(할머니, 할아버지 등)

## ●● 사업의 지원 내용

- 아동
  - 어린이집을 상담사가 방문하여 놀이 중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 후 적절한 치료방법 찾기 문제가 심각한 아동의 부모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화모색
- 교사
  -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언어, 눈 맞춤, 억양 등 아동에게 교사가 사용하는 상호작용 기술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훈련하면서 서서히 부정어, 명령어 줄이기, 온전성 있는 언어사용하기 등으로 교사
  - 어린이집 내에서 시행해 본 결과 교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아동에게 상호작용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려는 모습이 보임.
- 부모 또는 주 양육자(할머니, 할아버지 등)
  -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었는지 확인
  - 주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 부분 지도(언어, 반응시간, 비언어적표현 사용 등)

## ●● 사업의 차별성

- 찾아가는 어린이집 심리상담(놀이치료)
  - 부모들의 꺼려하는 상담, 치료센터를 가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기에 시간적 물질적 부담이 덜어진다.
  - 기질테스트 및 놀이치료
- 찾아가는 교사의 상호작용 지도
  - 집단중심의 교육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개별적인 변화의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1:1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PCIT아동상호작용 지도방법)

## ●● 사업의 기대 효과

- 찾아가는 어린이집 심리상담(놀이치료)
  - 어린 연령의 아동이 낯선 상담실에서 1시간동안 받는 상담은 적응시간과 부모의 시간소요로 인해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린이집 내 일어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상담과 치료가 함께 된다면 훨씬 치료, 상담 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 전문가가 방문을 통한 교사의 상호작용 지도 방법 교육
  - 실제 전문가가 방문하여 교사 상호작용을 1:1로 컨설팅을 해주었을 때 교사들도 훨씬 평가가 아닌 부분 이기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일과 중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호작용의 기술들을 고민하여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 ●● 시행기관

- 정부부처(예산지원)와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상담, 치료, 교육)에서 시행한다면 지자체의 우수한 지원과 양질의 교육지도자(전문)가 양성되어 현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에 편성되는 전문 인력이 그 지역의 시설들을 지원하도록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체험활동 공백 - 프로그램·자료 지원 사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학습·인력(특별활동 강사 등) 공백
  - 다양한 문화·예술 등 체험이 어려움
  - 보육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단조로움
-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 활동
  - 영유아들의 풍부한 심미감, 창의성 증진
  - 직접 꾸미고 만들어야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덜어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유아교육·보육기관
  - 영유아 대상, 보육교직원
- 가정
  - 부모와 자녀

### ●● 사업의 지원 내용

- 대·소근육 활동 지원
  - 다양한 종류의 놀이도구·기구, 에어바운스 등 지원·대여
  - 다양한 게임과 가상체험이 가능한 VR 설치·대여
- 퍼포먼스 미술·음악 활동 교구·악기·현수막·재료 지원
  - 공연·전시 등을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찾아가는 공연·전시'를 통해 실내에서 체험
  - TV, 컴퓨터를 활용한 시청각 자료, 주제에 맞는 현수막 지원 등으로 생생하게 체험
- 미디어 등 시청각 자료, 꾸러미 등으로 지역사회·경제활동 등 체험
  - 작은 음악회, 음악 감상실, 악기체험, 과학관, VR체험, 미술관, 농산물 꾸러미, 직업체험

### ●● 사업의 차별성

- 놀이중심 누리과정 꾸러미 등이 지원되나 양이 적고, 게임 등의 활동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영유아들의 발달과 관심·흥미를 고려한 매력 있는 교재·교구·꾸러미로 활동 지원
  - 책자·안내서 등을 통해 교사·부모의 지도·진행을 도움.

### ●●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유아들의 창의성·심미감·사회성 증진
  - 코로나 19로 인해 바깥 활동·체험이 제한되어 단조롭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실내에서 새롭고 재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음.
- 교사들의 수업활동 보조·지원
  - 여러 방법으로 활용 가능
  - 영유아 개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

### ●● 시행기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각 시도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지원

# 우리 함께 놀아요.

## - 놀잇감(도서) 대여 프로그램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각 가정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며 무엇을 하며 놀이를 할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놀잇감으로 놀이하며 교육과 보육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을 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실과 교구, 동화책 등의 자원이 활용되지 않는다.
  - 이에 환경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부공간을 개방할 수도 있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교구나 동화책 등 자원을 지역 영유아 가정에 개방하는 사업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 가정과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일부공간을 일부시간동안 개방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간 및 동화책, 교구 등 자원을 지역 영유아 가정에 함께 공유한다.
  -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는 영유아

### ●● 사업의 지원 내용

- 환경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의 일부 공간이 개방이 되는 곳이라면 함께 방문한 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동화책이나 교구 등으로 놀이를 할 수 있다.
- 놀이 후 동화책이나 교구를 일정기간 대여할 수도 있다.

### ●● 사업의 차별성

- 영유아 개별 발달 및 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을 수 있다.
  - 각 가정마다 영유아가 흥미를 보여 구입하였지만 금방 싫증이 나서 더 이상 놀이하지 않는 놀잇감도 있고, 수준에 맞지 않는 놀잇감을 구입하여 놀이하지 못하는 장난감들도 많을 것이다. 흥미를 갖는 놀잇감을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통해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영유아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놀잇감을 추후에 구입할 수도 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기관이 휴원을 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부모-아동 간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이로 인한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 애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영유아의 발달에 따른 수준별 놀잇감 및 동화책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놀잇감과 동화책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는 기간 동안 놀잇감과 동화책을 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원 동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 시행기관

-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지원

# 순환 도서 대여제 (오늘은 그림책 놀러오는 날!)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도서교구 보유에 있어 취약한 기관(평가제 하위기관, 도서 산간벽지 기관 등)을 지원하고 보강한다.
  - 도서(그림책)를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기관의 질적 관리를 지원한다.
  - (교구교재는 보이지 않고 학부모입장에서 확인하기에 취약한 부분이라 운영비 배당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삭감되거나 지출하지 않는 항목임.
  - 또한 양질의 도서나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비치하는데 유념하지 않는다면 도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늬만 도서인 채 운영되기도 함.
  - 특히 그림책(도서)이라는 특성은 끝임 없이 신간이 발간되는 특성을 지녀 지속적인 구매가 필요하나 보유 공간 확보의 어려움도 있음.
- 도서·산간·벽지의 영유아들은 양질의 도서를 접하는데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예상됨.
- 영유아기의 책읽기 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 필요하며, 영유아기 스마트폰 노출을 감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함.
- 기존 육아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관등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 가정지원보다는 집단지원이 월등하게 효과적임.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아동센터
  -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기에 취약한 기관 우선 지원
  - 더불어 평가제 점수가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기관, 산간·도서·벽지 기관으로 도서 대여를 희망하는 시설

### ●● 사업의 지원 내용

- 도서 대여 보급(기관별 순환보급)
  - 도서 트럭, 또는 도서 버스가 정기적(주 1회, 또는 격주 1회, 월1회 등)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도서를 대여해주고 감. 배급 시 동시에 지난 도서를 회수해야함.
  - 도서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관별로 순환하여 대여함.  
(각 기관 동일한 도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20권 규모의 도서 리스트를 50개 작성. 50개의 기관이 순환적으로 도서를 배급받음).
- 그림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찢어진 곳 보수, 낡은 도서 폐기 등)
  - 관리자로 자원봉사자, 또는 노인 인력을 활용  
리스트 업, 도서 업데이트 업무를 제외하고는 수리나 폐기업무는 비교적 단순작업이므로 자원봉사자나 노인 인력을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함.
- 나눔 정신 실현 독려
  - 영유아기 그림책은 시기가 지나면 필요가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나눔이나 기증에도 우월한 성격이 있어 도서 보유(준비)에는 예상보다 저비용일 수 있음.

### ●● 사업의 차별성

- 문화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 차별성이 있음.
- 오직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 보육의 질이 취약한 기관의 질적 향상을 직접 도모함.
- 책읽어주기 활동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교사들에게 부담이 없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독려가 용이함.

### ●● 사업의 기대 효과

- 양질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접하기에 취약한 지역이나 아동들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독서교육을 할 수 있음.
- 독서를 통한 언어교육은 물론, 상상력, 창의성 등 교육효과가 우수하며, 추후 우수하고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초가 됨. 더불어 모바일폰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추후 효과도 생길 수 있음.

- 인력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음.(도서정리, 수리, 폐기선별등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노인인력, 보육퇴직 인력, 경증장애인 활용도 가능함).
- 힘든 출판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미약하나마 경제회복에 일조할 수 있음.
- 기업(자동차 제공시)의 영유아교육의 동참을 유도하여 영유아교육의 인식 및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음.

### ●● 시행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독서관련 비영리 사단법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산간·도서·벽지 등 문화교육에 매우 취약한 지역의 아이들은 양질의 우수한 클래식 음악인들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고비용임.  
이에 클래식을 전공한 음악인이 직접 기관으로 찾아가 음악공연을 이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 학습의 기회 극복
  - 영유아(초등, 중, 고등도 가능)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음악인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음악 연주를 제공하여 직접 교육 학습기회를 확보하고자 함.
  - 이미 방문음악회는 상업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으로 매우 고비용임.
-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는 영유아들에게 정서교육은 매우 필요함. 음악교육이 주는 정서적 효과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 우월하며, 거부감이 전혀 없는 즐거운 교육임.
- 음악회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필수적인데 집단시설은 공간 확보에 매우 유리함.  
음악의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음. (클래식 음악 전공자의 경우, 활로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정기적인 공연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도 있음.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의미 있는 사업임).
- 음악인 입장에서 기관 방문 공연은 주로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오후에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아동센터 또는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 ●● 사업의 지원 내용

- 전공자로 구성된 음악인 구성.(은퇴음악인,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전공자등)
- 정기적인 방문 클래식 공연 개최 (최소 월 1회)
- 필요시 기금일부는 수혜기관에서 자부담

### ●● 사업의 차별성

- 문화 접근 취약지역의 기관에 있는 영유아(아동)를 위한 직접 음악교육 수혜
- 공연관람의 접근성 확보
- 기관입장에서는 협조사항이 거의 없어 적극참여에 용이

### ●● 사업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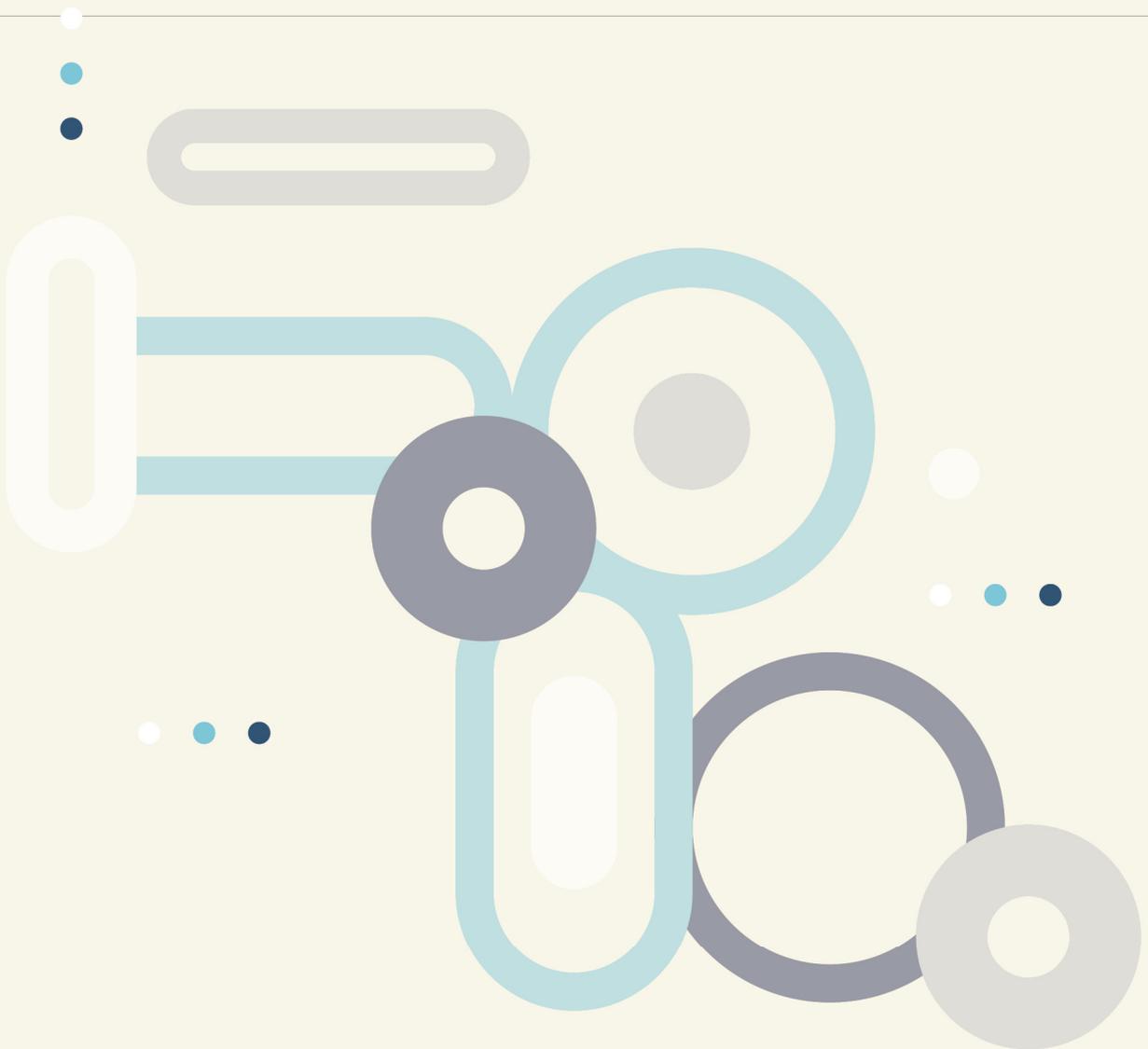
- 취약지역 기관 영유아에게 문화교육 지원
- 공연을 통한 생생한 음악교육은 물론 정서교육 도모 (정서적 안정감 형성)
- 음악교육 및 공연관람 문화 습득으로 고품격 시민양성의 기초교육에 이바지함.
- 클래식 음악인들의 재능기부 도모 및 직접 지원 효과

### ●● 시행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 4

## 유아교육·보육 제도개선



#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수립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사업의 제안 배경
  - 보육 사업에 관련된 법률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운영자 및 지자체 공무원(순환근무)들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
  -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안전사고 및 노무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보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분쟁(아동학대, 안전사고 및 노무관련 분쟁)의 해결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의 목적
  - 보육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으로 영유아 및 부모, 교직원의 안녕을 추구
  - 어린이집 지도감독 기관의 업무수행 효율성 증진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원장 포함 보육교직원(2020년 12월말 기준 325,669명)
  - 보육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직원 간, 운영자와 교직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음.
- 어린이집 지도감독 기관
  - 상시 체계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내용

- 보육 관련 법률과 아동학대 관련 판례 등을 총괄하여 정비함.
  - 보육 관련 이해 당사자 누구나 필요한 법률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보육분야 특화된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단을 구성함.
  - 전화 또는 이메일,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법률 자문이 가능함.

### ●● 사업의 차별성

- 보육 사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이 전무함.
  - 어린이집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전문 법률 지원이 절실함.
- 보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커짐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할 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보육업무는 공공적 성격이 강함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노무, 안전사고, 아동학대 사건 판례 등)을 총괄하여 정비하는 것임.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법률 자문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할 수 있음
  - 기존 보육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는 단순하고 형식적임.

### ●● 사업의 기대 효과

- 사회적 비용 감소
  - 공적인 영역에서 명확한 법률 자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모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공정한 법률자문시스템을 통해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낌.
  - 이에 보육교직원은 운영과 보육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영유아 및 부모에게 돌아감.

- 분쟁 발생을 최소화
  - 법률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의 증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기본 체제 구축
- 전국에 분포해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구체적인 자문단 구성 및 실행

# 모두가 행복한 키움의 공간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교사지원 및 수당 보육지원체계 개편
  - 최근 2년 동안 연장 반 전담 교사 배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의 되어 실행되었으나 예산 고갈, 학기 중에 도입 등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육의 안정, 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단발성 보육지원정책들의 예산과 방안을 다듬어 장기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영유아들에게 안정된 보육,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아전담수당 누리전담수당 차이 감소를 통해 보육교사가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보육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부모교육 필수 이수 강화
  -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모 교육 필수 이수를 강화하여 원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교육 필수 이수를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소통이 증가하고 영유아의 보육, 교육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공동육아를 하게 됨으로써 영유아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 장기적인 보육 정책으로 인한 보육혼란 감소
  -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보육 안정화
- 학부모
  - 부모교육을 통한 양육 문제 도움 및 해결

- 부모교육 필수 이수를 통한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 영유아
  - 안정된 보육, 교육 환경에서의 즐거운 생활
  - 학습이 된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

### ●● 사업의 지원 내용

- 교사지원 및 수당 보육지원체계 개편
  - 연장반 교사 전담 배치 :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보육,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연장 반 교사가 소속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연장반 교사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강화하고 지원합니다.
  - 아동 대 비율 개선 :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고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교사의 정서적 안정 및 직무 향상과 영유아들에게 안정된 보육을 제공하는 효과를 내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 부모교육 필수 이수 강화
  - 현재 부모교육을 각 원에서 서면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상지원으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 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모교육 필수 이수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 사이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영상지원 또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필수로 이수하고 이수내용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공유하여 영유아, 학부모 등 모두가 행복 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사업의 차별성

- 교사지원 및 수당 보육지원체계 개편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사업 제안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 매뉴얼을 강화시켜 실제 보육현장에 적용되어 보육교사의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를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모교육 필수 이수 강화
  - 기관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영상지원 또는 핸드폰 어플을 개발하여 부모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나아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 까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교사지원 및 수당 보육지원체계 개편
  - 장기적인 보육 정책과 보수된 매뉴얼로 인한 보육혼란 감소
  -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보육 안정화
- 부모교육 필수 이수 강화
  - 부모교육을 통한 양육 문제 도움 및 해결,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 학습이 된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육아종합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 ‘인.공.지.능. 보육’

인: 무인형 어린이집  
공: 공유형 어린이집

지: 지역형 어린이집  
능: 능력형 어린이집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모님 이라고 해서 부모교육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님
  - 자녀의 재원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음 (63.0%).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낯선 장소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기관 방문이 어색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출처: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2017)
- 부모교육의 참여정도, 부모교육 운영 현황, 운영의 어려움, 참여의 어려움이 파악됨.
  -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꼽음(58.8%).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할 때 예비부모,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사에 맞게 주제선정을 할 필요가 있음.
  - 맞벌이가정과 보육교사는 바쁜 하루일과 속에서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만 남무하는 현실
- 대부분의 어린이집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원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
  - 부모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참석이 어려운 실정에 맞춰 무인 대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자와 함께 방문하고 원을 개방하여 공유하고자 함.
  - 펜데믹 시대에 영유아들이 근접해 있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함.
  - 주말 또는 공휴일에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가정보육에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 예상됨.

- 어린이집의 시설과 안전한 놀이 공간, 행사를 지역사회, 지역 내 육아에 관심 있는 부모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에 효율적임.
  -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 놀이공간을 활용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내 부모교육(성교육), 행사를 개최할 때 많은 비용이 소모되나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지역 내 영유아들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 발생됨.
- 주말, 공휴일은 무인 시스템, 대관시스템을 어린이집에 도입하여 보육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 보건(위생)교사를 투입하여 무인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열 체크와 출입자 체크를 위한 보건교사와 쾌적한 공간을 위해 자동 로봇청소기 지원 또는 위생교사를 파견하여 배치함으로써 인력 창출 도모하기 위함.
  - 금요일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재미있게 했던 놀이재료를 폐기하는 것에 아까울 때가 있어 지역 내 아이들이 주말에 이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 어린이집을 대관하고 무인으로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시설개보수 및 놀이 공간의 질 개선에 효과적 일거라 판단됨.
  - 어린이집 교직원들도 어린이집 공간을 공유하고 개방되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 보육환경에 철저히 관리하고 경각심이 생김.
  - 연령별 적절한 교재교구 지원과 시설 개보수 지원 필요함.
  - 어린이집의 질 개선과 교사들의 업무 능력 효율성이 높아짐.

## ●● 사업의 지원 대상

### • 부모를 위한

(예: 육아상담, 자녀 발달 검사, 아이 반찬 만들기, 빵 만들기, 손소독제 만들기, 모빌 만들기 등...)

- 육아를 경험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 참여형 세미나를 통해 삶에 반영, 육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체험형 세미나

### • 영·유아를 위한

- 주말에 멀리 가지 않고 지역 내 무인 대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놀이 공간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음.
- 영유아들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린이집에 입소 또는 적응 시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음.

### • 어린이집을 위한

- 무인 대관 어린이집 사업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개방, 공유함으로써 긍정적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됨.
- 공유형 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 및 교재, 교구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놀이공간의 질 개선에 도움.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지원

## ●● 사업의 지원 내용

- 무인 대관 어린이집을 위한 참여형 세미나 강사 지원
- **무인형** 어린이집 놀이 공간 시설 개보수비 지원
- **공유형**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
- 보건 및 위생 교사 ‘**클린 도우미**’ 인력 지원
- **무인형** 대관 예약 시스템 도입
- **무인형** 어린이집 로봇 청소기 지원

## ●● 사업의 차별성

-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놀이와 생활에 **투명하게 바라봄으로써 궁금증 해소**
  - 자녀와 지역 내 원에 방문하여 자녀의 놀이를 관찰하며 자녀의 원 생활에 대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 궁금증 해소가 됨.
  - 부모가 자녀에 대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소통단절로 인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즉, 오해가 사건이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함.
  - 자녀의 생활을 보고 싶는데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어 CCTV만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
-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에 도움
  - 노키즈존이 생겨날 만큼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 할 수 있는 공간 제약이 큼.
  -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가정 내에서 자녀들의 신체 활동 저해
- 가정에서 부모가 영·유아와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한 **한계점 해소**
  - 가정은 어린이집보다 환경이 위험적인 요소 노출이 많음.
  -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놀이재료와 흥미 유발하는데 어려움이 큼.
  -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나 자녀가 장시간 놀이를 지속하지 않아 어려움.
  - 영유아 자녀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유아기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무인**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부모를 위한 참여형 세미나 또는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 공간 **공유**

를 위해 「**인.공.지.능. 보육**」 정책 방안을 제안함.

- 무인 예약 시스템 도입과 로봇청소기를 활용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에 효과가 큼.
- '**클린 도우미**' 보건(위생)교사 파견, 일자리 창출
- 어린이집 공간을 무인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부모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어린이집 질적 재고에 대한 긍정적 효과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한 놀이 공간을 위해 시설 개보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무인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 또한 클린도우미 인력 배치를 위해 클린도우미 급여 지원 시급하다.
- 시군구에서는 공유형 어린이집을 위한 놀이공간의 질적 재고를 위해 교재 교구비를 지원이 필요하다.
-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투명하고 공유 가능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시설의 안전성과 연령별 수준에 맞는 놀이자료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

# 아동수당의 지원확대, 장애아동 반별 아동 비율 축소로 보육의질 향상, 특수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아동수당 지원 확대
  - 영유아기보다 학령기 아동들이 수당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교육비, 교통비 등)
  - 수당명을 아동수당이 아닌 교통비수당, 교육비수당, 간식비 수당 등으로 나누어 시대에 맞는 트렌드의 명칭으로 개편하여 만18세 아동들에게는 직접 지급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 (만13세 이상~18세미만 통장으로 직접지원)
- 장애 전문 어린이집 반별 아동 비율 축소하여 보육의 질 향상
  - 교사 대 아동비율이 3:1인 것을 2:1로 축소하여 운영 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교실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 보조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예: 현재 20인 시설의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2:1로 정원 아동이 20명이 아닌 18명으로 축소하여 정원 충족률을 채우고 활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수학교 유치원 반별 CCTV 설치 의무화
  - 현재 어린이집에만 의무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CCTV를 국공립 유치원에서도 적용되어 장애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전체 아동(만0세~18세)
  - 태어나자마자 청소년의 마지막 나이인 만18세까지로 정함.
  - 현재 장애아동들에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은 더욱더 확대하여 지급 해야 함.

- 장애전문, 장애통합 어린이집
  - 현재 장애 아동 전문,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모두 해당 됨.
  - 교사 대 아동비율의 축소는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해당이 됨.
  - 장애 전문 어린이집 또는 통합 어린이집은 교직원 인건비가 80%가 아닌 100% 지급이 필요함.
- 특수학교 유치원 반별 CCTV 확충
  - 어린이집 뿐 아니라 특수학교 유치원에서도 아동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의무 설치가 필요함.

### ●● 사업의 지원 내용

- 아동수당 지원 확대
  - 예산을 책정하여 아동수당을 만18세로 확대 지원
- 장애 전문 어린이집 반별 아동 비율 축소하여 보육의 질 향상
  - 예산을 책정하여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인건비 100% 지급
- 특수학교 유치원 반별 CCTV 설치 의무화
  - 예산 책정을 하여 CCTV 의무 설치 (수도권 우선)

### ●● 사업의 차별성

- 아동수당 지원 확대
  - 지금 영유아기에만 치중되어있는 아동수당을 확대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돌봄교실 외에도 배우고 싶은 공부 등을 더 배울 수 있음.
  -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중, 고등학생은 배제된 경우가 많았으나 학령기 아동일 경우 소요되는 경비가 더 많음. 이 나라의 자라는 일꾼들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꿈과 미래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 저출산 문제는 단순 영유아기의 문제가 아님. 저출산 문제는 아이들이 커 나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더 심각해지는 것이므로 나라에서 아이들이 성장 할 때까지 폭넓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함.
- 장애 전문 어린이집 반별 아동 비율 축소하여 보육의 질 향상
  -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운영이 매우 어려움.

- 100%인건비를 지급하고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함.

- 특수학교 유치원 반별 cctv 설치 의무화
  - 현재 어린이집에만 의무 설치가 되어있는 cctv를 특수학교 유치원에도 설치하여 확충하고 나아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서도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에 힘 써야 함.

### ●● 사업의 기대 효과

- 아동수당 지원 확대
  - 만18세까지 작은 수당이라도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면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나 먹고 싶은 간식 등을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교우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애 전문 어린이집 반별 아동 비율 축소하여 보육의 질 향상
  - 반별 아동 비율 축소로 인해 보육 환경 공간이 넓어지면서 장애아동들이 다치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보조 인력까지 합쳐져 안전한 보육 환경이 만들어 질 것임.
  - 보조인력(학교에서는 실무원)의 의무 확충, 교사 인건비 100%지원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난 극복, 행복하게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임.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각 시도

# 어린이집 순회방문지도사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or 연령별 담임교사 수 증원
  - 만 0세반은 집중 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도움이 많이 필요함
  - 만 3세반의 경우, 직전 반 (만 2세 7명)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큰 것 같음.  
∴ 담임교사의 역량강화,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영유아가 보호받을 수 있을 권리 多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유치원 교사
  - 학부모
  - 영유아

## ●● 사업의 지원 내용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원아의 수가 홀수보다는 짝수 위주로 반편성이 되면 좋겠음.  
예) 만 0세 3명 → 2명, 만 1세 5명 → 4명, 만 2세 7명 → 6명

- 영국의 경우

예) 0세 → 3명, 1세 → 3명, 2세 → 4명, 3세 → 8명, 4세 이상 → 8명

• 연령별 담임교사 수 증원

- 0세반 선생님의 경우 아이들 안전문제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

-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多

∴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제공, 안전하게 보호, 보육교사 인권·권리 ↑

### ●● 사업의 차별성

-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중이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보육교직원, 학부모, 영유아가 보다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개별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 ●● 사업의 기대 효과

- 보육의 질 향상 (교사의 보육스트레스 ↓, 교사-유아 상호작용 ↑ ⇒ 전문화)
- 보육환경 개선 (학부모 만족도, 신뢰도 향상)
- 아동학대 예방 (안전사고 예방)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
-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 ●● 시행기관

- 전국 보육담당 부서 (한국보육진흥원)
- 전국 유아교육 부서 (교육부)

# 다(多) 행복 희망 정책 제안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 민간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의 전문성 격차해소를 위한 전문성 강화 정책의 필요성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염지숙·고영미, 2014, 류영희, 2021). 보육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의 사회적, 인지적, 언어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의 물리적 환경, 제도적 여건, 교사의 자질과 태도, 교육에 목표달성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부모의 의견반영, 부모와의 협력관계, 적극적인 부모참여 역시 중요하다(이순임, 2014, 류영희, 2021).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은 보육과정, 운영관리, 물리적 환경,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평가,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 모든 측면의 활동수준이 법인 어린이집이나 혹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영희 2021).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정부는 '보육공공성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 "국공립보육시설 40% 확대"(2017.4.1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http://news.khan.co.kr/kh_news/))는 핵심 선거공약으로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거듭 재확인한 바 있는 중요 국정과제이다.11) 각종 언론이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40% 달성목표가 '국공립시설의 비율'인지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의 비율'인지 혼재되어 있었지만,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서는 한발 후퇴하여 '이용율'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국공립시설 확충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해간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7a).

최근 3년간 총 276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 개설되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은 69개소(25.0%), 리모델링 46개소(16.7%), 민간 매입 129개소(46.7%), 대체. 이전에 해당하는 기타 32개소(11.6%)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 민간매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신축, 리모델링, 기타 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민간 매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정호진, 2020). 민간매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어

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월등히 많은 민간 어린이집의 시장과의 균형 맞추기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어린이집에서 전환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간 기존의 전문성 및 역량의 격차는 극명화된 사실이다. 다양한 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보육서비스 질의 핵심인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안현미 외, 2016, 최이수, 2020).

## ●● 사업의 지원 대상

- 부모
  - 보육서비스 질, 부담 경비 수준, 직원 역량, 성실성, 다툼 경험, 열린 어린이집 운영은 학부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설립 주체별 학부모 만족도는 국공립·직장보육시설이 타 유형에 비해 높다.
  - 학부모 만족도는 보육서비스 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 질은 보육활동의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즉 보육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의 질,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 활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학부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 국공립 전환원장들은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력교사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 교육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최이수, 2020). 따라서 보육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은 원장의 보육 교직원 관리 및 전문성 향상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공립 전환 후 보육 교직원의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이후 전문성을 한순간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최이수, 2020). 보육 교직원의 질 제고 방안 정책은 원장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가 인정된다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낮은 이직 의도를 나타내어 보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진경미, 2017). 직급별 급여체계 도입은 교육교사의 근무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
  -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의 경력은 단순한 시간적 축적이 아니다. 경력이란 시간의 길이만이 아닌 정신적 공간이며, 동시에 교사의 수행을 좌우하는 물질적 힘의 자원이 된다. 고경력 교사들의 채용, 반 배치에 영향을 주는 유아, 영아반별 인건비 지원을 동일화함으로써 고경력자들이 장인적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교직의 숙련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사업의 지원 내용

■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에 따른 보육의 질 제고 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영아(80%)반, 유아(30%)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률의 동일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형 중 세 번째로 많은 기관, 영·유아 보육교직원 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2020년 기준 35,35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4,958개소, 보육교직원 325,669명 중 59,974명, 영·유아 1,244,396명 중 253,251명).
  - 보육교사 고용 시 3호봉 이상 경력교사 채용을 꺼려하고 전체 보육교사 중 35.3%만이 경력과 호봉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원, 2015).
  - 경력이란 시간의 길이만이 아닌 정신적 공간이며, 동시에 교사의 수행을 좌우하는 물질적 힘의 자원이 됨. 경력은 전문성인 동시에 숙련성이다.
  - 현재 영아반 80%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고경력, 고 호봉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 및 갖고 있는 역량과 상관 없이 영아반에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 영아반, 유아반으로 나누어진 교직원 지원금 비율을 영아반, 유아반 모두 60% 지원으로 지원금 변경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 현재 지원금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어린이집 부담금 |

호봉	담임배치	월 정부지원금	월 어린이집 부담
5호봉	영아반	1,676,640	419,160
	유아반	628,740	1,467,060
15호봉	영아반	2,129,600	532,400
	유아반	798,600	1,863,400

5호봉 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5,029,920원  
 5호봉 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17,604,720원  
 15호봉 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6,388,800원  
 15호봉 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22,360,800원  
 영아반 배치 시 저경력자와 고경력자의 연간 부담금액 차이: 1,358,880원  
 유아반 배치 시 저경력자와 고경력자의 연간 부담금액 차이: 4,756,080원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는 100% 수익자 부담 및 지출이 되므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수익은 보육료가 유일함.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고경력자는 영아반으로 주로 배치되는 구조가 된다.

| 60% 동일하게 지원했을 때의 정부지원금과 어린이집 부담금 |

호봉	담임배치	월 정부지원금	월 어린이집 부담
5호봉	영아반	1,257,480	838,320
	유아반		
15호봉	영아반	1,597,200	1,064,800
	유아반		

5호봉 교사의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10,059,840원

15호봉 교사의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12,777,600원

저경력자와 고경력자의 연간 부담금액 차이: 2,717,760원

\* 기존의 지원대로 5호봉을 유아반, 15호봉을 영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연간 부담금액:  
23,993,520원

60% 지원으로 교사 배치를 자유롭게 할 경우 어린이집 연간 부담금액: 22,837,440원

- 기존 지원 %와 60%지원을 받았을 때 어린이집 연간 부담 금액은 1,156,080원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경력과 상관없이 전문성과 역량, 보육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반 배치가 가능하여 어린이집의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단,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 기존의 80% 지원을 유지한다.

만1세 반의 보육료 수익: 426,000원×5명=2,130,000원

만5세 반의 보육료 수익: 260,000원×18명=4,680,000원

유아반의 월 보육료는 낮으나 보육 인원으로 인해 월간 보육료 수익이 영아반에 비해 45.5% 많음.

따라서, 보육료 수익구조에 따라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의 80%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담임교사(정교사), 오후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급수별, 학력별 호봉제 도입
    -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더 많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책임의 경중함과 맡은 업무도 다양한 상황이지만 현  
재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3가지 업무로 나뉘어진 단순한 호봉체계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표를 보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교사와 2~3년제 대학 졸업한 교사, 보육교사 양  
성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따른 차이가 없이 신입 교사의 경우 똑같이 1호봉으로 호봉체계를 적용한다.
    - 한편, 유치원교사 호봉 계산방법은 교육공무원 호봉계산 방법과 동일함. 경력환산율표 적용, 학력 및 경  
력연수 가감, 가상호봉 적용 3단계로 호봉이 결정된다.
- 확정호봉 = 환산 경력연수+(총수학연수-16)+가산연수(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1년을 준다)+  
가산호봉(정교사 2급 가산호봉 적용 8, 정교사 1급 가산호봉 적용 9)

- 예1)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5-16)+0+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7$
- 예2) 4년제 유아교육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 교사  
 $0+(16-16)+1(\text{가산연수 1 적용})+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9$
- 보육교사들이 처한 직무환경인 근무조건과 처우에 만족을 느낄 때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영·유아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보육교사 직무만족도와 보육시설 근무환경과의 관계 분석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양승희, 염순교, 2007, 이연승, 최진령, 2013).
  -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체계와 같은 학력별, 급수별, 직책별, 직위별 보육교직원 호봉체계를 제안한다.
- 예1)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2-16)+0+5(\text{보육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1$
- 예2) 3년제 보육관련학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5-16)+0+6(\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5$
- 예2) 3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5-16)+0+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7$
- 예3) 4년제 보육관련학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6-16)+0+6(\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6$
- 예4)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6-16)+1+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9$
- 예5)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5년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경력교사  
 $5+(16-16)+1+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14$
- 예6)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0년 보육교사 1급 및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경력교사  
 $10+(16-16)+1+9(\text{정교사 1급 기산호봉 적용}) = 20$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직무에 불만족하는 1순위 이유는 경력이 쌓여도 임금 인상이 없어서(29.5%), 업무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아서(18.9%)였다. 경력이 쌓여도 임금인상이 없어서 문항의 경우, 누리 보조교사(31.3%), 일반보조교사 1순위(28.6%), 대체교사(54.5%)가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업무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아서 문항의 경우, 보육도우미(33.3%), 부담임교사(37.5%)가 1순위로 응답하였다(박창현, 김상림, 2018).
  - 따라서 오후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누리 보조교사에 대한 경력별 호봉표도 마련 되어야 하며 오후 연장반 교사의 경우 보조 및 누리교사와 다르게 담임의 역할을 하는 점,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호봉	보조 및 누리교사	오후연장반 교사
1	1,011,000	1,111,000
2	1,020,908	1,121,888
3	1,030,816	1,230,766
...	...	...
...	...	...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력과 자격급수에 따른 임금의 차별화를 호봉체계에 반영하여 학력에 의한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동기화하고, 보육교사 자격체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초임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무중심의 보육교사 인턴제도 교육과정 도입 방안
  - 초임교사는 셀렘 보다는 이론과 실체가 다른 보육 현실에 대한 충격, 두려움,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언급함. 이들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 부담스러운 역할 기대, 새로운 환경 적응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임교사의 경험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박지현, 2021).
  - 초임교사는 학생에서 교사라는 자아의 직책과 역할이 급변하는 시기임. 때문에 불안한 자아와 더불어 스트레스가 지속으로 자신에 대한 죄책감, 불신, 자존감 저하의 부정적 감정을 초래한다(박지현, 2021).
  - 따라서 첫 교직 경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나 연수원, 양성소는 이론과 실체가 적절하게 융합된 교육과정 제시가 필요함. 또한 실제 보육 기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보육 실무중심의 교육 내용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박지현, 2021).
  - 이에 따라 초임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무중심의 보육교사 인턴제도 교육과정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 실무중심 보육교사 인턴제 교육과정 시기: 보육교사 자격취득 직전
- 인턴제 실시 기간: 3개월
- 교육과정 내용: 영유아 보육 및 보육일지 작성법 외의 실무 업무, 관찰기록 작성법, 각 영역별 주요 서류 파악,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여 영역별 서류 작성하기, 교실관리, 학부모 상담 참관 및 상담일지 작성, 부모교육 계획 및 참관, 행사계획 및 행사 참여 등의 교육과정 내용을 인턴제 교육과정 내에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으로 지정함.

-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 교사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마련
  - 보육교사는 전문가로 인정받기보다는 '아동학대 예비 범의자'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음. 이로 인해 유능한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함.

- 전문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직장인이라고 하기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는 현실임.
- 보육 소비자들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사실 여부를 떠나 아동 학대교사, 교사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글들을 작성하여 보육 교사에게 심적 고통을 주고 있음.

○ 관련기사: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맘카페 마녀사냥으로 극단적 선택/  
<http://www.civi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4>

○ “딱밤 학대 의심” 맘카페 글로 어린이집 원장 숨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459231&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 교육공무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있음.
- 보육교사도 「보육 교직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보육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보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사항을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도 반영 및 법제화할 수 있음.

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글쓴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실효와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감을 수행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보육 교직원을 근로자의 관점이 아닌 교육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오후 연장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직무 재정립- 개편된 보육 지원체계에 따른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게 명확히 업무를 배분하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정부 인건비 지원 요건(영아반 30시간/월, 영아반 80시간/월)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연장 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가 중단되어 근로 보장이 불안정함. 이러한 인건비 지원 요건은 고용불안을 초래함.
- 담임 교사의 경우에도 재원 원아 기준(0세반 최소 2명 이상, 1세반 최소 3명 이상, 2세반 최소 4명 이상, 3세반 최소 8명 이상, 4세반 이상 최소 11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인건비를 지원함.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근무 교사는 고용불안을 느낌.

-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이용시간, 재원 원아 기준이 아닌 업무별 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을 때 무조건 지원이 되어야 함.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원장에게 쏠린 과도한 안전 관리의 책임 완화
  -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함.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육아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은 안전임.
  - 매년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업무 및 안전교육관련 법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시설 관리 부분은 여성 보육 교직원들이 대부분인 어린이집 특성상 안전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함.
  -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및 안전 관련 책무 중 화재예방·소방시설, 어린이집 놀이시설관리,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노후시설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석면안전관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나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숙지하여 관리하기에는 시설·설비 및 안전관련 전문지식 부족의 한계, 과도한 업무환경,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방염, 설치기준 등 세심한 검사기준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시설보수업체에서 파악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을 총괄하는 원장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교육과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도 꼭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및 국가기관이 인증받은 보수업체를 선정해 엄격하게 관리 및 점검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 총괄 기관」지정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함.
    1. 소방 및 화재 안전 거점 관리기관 선정
    2. 차량 안전 점검을 위한 사업소 지정 및 출장 서비스
    3. 어린이집 가스안전 및 전기안전을 위한 관리사 지정
    4. 건축물 개·보수 및 놀이터 시설점검
    5. 석면, 미세먼지 등 관리
  - 위와 같이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을 관리해 줄 총괄 기관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어린이집 어느 곳이든 안전한 시설임이 확인된다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도 어린이집을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안심 보육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지원이 꼭 필요함. 이를 통해 원장은 어린이집에 부과된 과도한 안전의 책무 완화되며 자신의 전문분야인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순서 변경 및 지원 정책 제안
  -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규 및 변경 위탁, 재위탁 심사 시 「영유아아보육법」제25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유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함(보건복지부, 2021).
  - 장애통합어린이집은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이 지정대상임.
  - 통합시설 지정절차는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함.
  - 이러한 지정절차를 정리하면
    - 1) 장애아 보육을 위해 장애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2)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어야 지정대상이 됨.
    - 2)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야 함.
    - 3) 위의 요건을 갖춘 후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신청서 제출함.
    - 4) 서류 및 시설 검토 이후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결정됨.
    - 5) 지정 이후에 인건비가 지원됨.
  - 위의 절차대로 하면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장애를 모집하고 교사를 채용한 후에 지정이 됨. 이럴 경우 문 제점은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아 전담교사 없이 장애아를 모집한다는 것은 일반 교사에게 업무의 과중을 줄 수 있음. 그렇다고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100%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장애아전담교사를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불가능함.
  - 따라서 지정절차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희망할 경우
    - 1)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신청서 제출
    - 2) 장애아 보육이 가능한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현장 심사
    - 3) 시설 기준을 충족하였을 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 4) 장애아통합보육을 위한 장애아 모집 및 장애아 전담교사 채용의 순서로 변경되어야 함.
  - 장애 영·유아의 장애 정도 혹은 장애 유형 등에 고려 없이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를 가진 장애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음.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교수 방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다양한 장애 유형의 영·유아들이 동일한 반에 속해 있을 때 보육의 초점을 어느 장애 유아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교사의 어려움이 큼(강경숙, 2012).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기준에 있어 기존의 교사 대 장애아 비율을 1:3으로 하는 것은 통합보육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모두 긍정적인 장애통합 보육의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비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장애아 통합보육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장애 급수별 교사지원정책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정책 제안
  -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상시 11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함.
  - 저소득층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설로 '어린이집'이라고 칭하며 지역의 주민 자녀를 50% 이상 보육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
  - 그러나 농촌 영유아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보육 아동들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준비기간이 길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의 보육이 가능한 시설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이 가능한 대규모 민간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농촌 보육 아동들의 보육시설 접근을 저해하는 것임(김태현, 2015).
  - 저출산의 문제로 어린이집의 정원 총족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권고사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각 연령별 보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인하여 영아 통합반, 유아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재원하는 영유아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함.

## ●● 사업의 차별성

### ■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에 따른 보육의 질 제고 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영아(80%)반, 유아(30%)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률의 동일화
  - 기존 지원률 적용과 60% 변경 지원하였을 때 금액적 차이를 세세하게 비교 분석하였음. 이러한 분석으로 현재 지원률과 지원금액 및 어린이집 부담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적정한 지원률(60%)을 찾아냄으로써 현장에 빠른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담임교사(정교사), 오후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급수별, 학력별 호봉제 도입
  -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 보조교사, 오후연장반 교사가 모인 교사학습 공동체 Y.E.S.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안함. 비록 가치로운 연구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책과 직급이



- 또한, 급수, 수학 연수, 직책에 따른 호봉의 차이로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느낄 수 있고 향후 급여 향상을 위해 관련 공부를 하며 교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보육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침.
-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만 늘 '을'의 입장에서 근무를 하며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높지 않음.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교직원의 자존감, 사명감을 높일 수 있음.
  -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은 다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들에게 정부가 보육교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장에게 쏠린 과도한 안전 관리의 책임 완화
  - 안전 전문가, 안전 전문 업체에 어린이집 안전을 위탁하며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순서 변경 및 지원 정책제안
  -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근처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없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장애 유형별, 급수별 지원체계 적용으로 보다 질 좋은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정책 제안
  -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학부모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함.
  - 저출산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의 처우가 개선됨.

## ●● 시행기관

-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률, 직급별 호봉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함.
- 보육교사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여 의회 통과를 거쳐 법제처에 등록함.
-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보육교사인권보호센터(가칭)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및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
- 원장의 안전관리 책임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및 위탁 공공기관이 수행함.

# 전 연령 교사 대 영아비율 축소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놀이 및 활동 지원의 어려움 (교사 대 영아비율축소)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1-3-2에 따르면 교사는 영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나누어야합니다. 항상 영아가 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육실 전체나 바깥 놀이 공간 전체를 자주 살펴 반 전체 영아의 놀이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합니다  
진행과정에서 비언어적, 언어적 지원을 하거나 놀잇감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놀이를 지속시켜야 하는데 영아마다 흥미가 다르다 보니 모두 충족해주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상호작용의 어려움

교사의 질적 수준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활동에서입니다.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요소이겠지만 상호작용은 다른 어떤 것이 대체할 수 없는 온전히 교사가 전적으로 담당해야하는 역할이므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한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 수, 즉 교사 대 아동 비율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교사 대 영유아비율기준 조정

-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당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인 운영 체제
  - 교사1인 체제를 다인 운영 체제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교사 1명이 한 반을 책임지는 방식을 2명 이상 다수의 다양한 교사가 함께 한 집단 또는 최대 규모의 반의 영유아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 ●● 사업의 지원 내용

- 교사 대 영아비율축소
  - 현재 교사 대 영아비율은 만0세는 1:3, 만1세는 1:5, 만2세는 1:7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110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만0세와 만3세반만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만0세는 1:2, 만1세는 1:4, 만2세는 1:6으로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3세는 교사 대 아동이 12~13명, 만4세는 교사 대 아동이 16~17명 만5세는 교사 대 아동이 19~20명으로 현행보다 최소 3명이상 아동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보조교사 투입
  - 보조교사를 투입하면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능하므로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위급한 상황 및 화장실 등 효율적인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들과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 교사들의 고립감과 소진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동의 안전에 효율적이며 영유들을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차별성

- 영유아 안전과 보육의 질 향상
  -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줄어든다면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횟수나 질이 달라지고 아동 한사람에 대해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질과 양이 차이 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2~3세가 39%, 5~6세 25%, 4~5세 24%, 7세 이상 12%, 0~1세 1%로 살펴볼 때 2~3세의 영아가 가장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기에(한두희, 정수일, 2009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안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업무 감소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 완화

- 여러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수시로 몸을 낮추고 필요시 영유아를 들고 안아야하는 신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김일옥, 염계정, 2015 보육교사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의 지도에 있어서 학부모와의 상담과 가정연계교육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워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방정선,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 사업의 기대 효과

- 개별 또는 집단으로 영유아와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

-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집중하여 듣고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부정적 평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유아가 허용적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개별적 요구를 표현하도록 기다려주고 영유아의 질문에 대한 미소, 집중하기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래 간 친밀도 상승

- 또래의 수가 적어집에 따라 또래 간 친밀도가 증가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시행기관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을 조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시행하며 더 많은 보조교사 투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 영아보육 서비스 재고 (축소 운영 및 시간제보육 개선)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발달에 적합한 보육체계 정비) 아동인권, 영아입장에서 무리하게 적용되는 보육서비스를 정비함.
  - 보육공공성이 대세이기는 하나, 정작 영아에 입장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개별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영아가 지나치게 장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려되므로 기존의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바람.
  - (부모인식 개선) '나라가 키워준다'는 선전문구, '시간제 보육' 제도는 자칫 부모들이 양육초기에 그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영아의 발달적 민감성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 부모와 영아와 초기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간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아 및 대상가정)

## ●● 사업의 지원 내용

- 2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영아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영아들의 첫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상황에 따라 선택함.  
예: (기본형) 현행 8시간 기본 이용 유지.  
(요일단축형) 월-수-금, 또는 화-목 이용반으로 운영

- (시간제보육 개선) 영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실시 효과 및 현황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필요성은 인정하나 성인 위주의 서비스이고, 이는 부모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유도함이 바람직함.
- 일회성의 시간제 보육을 영아의 입장에서 예측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아무리 부모의 필요가 있다고는 하나, 영아로서는 무작정 낯선 환경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영아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서 부모 및 영아를 이해시킬 필요 있음.
- 현행 월 80시간 이용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함.

### ●● 사업의 차별성

- 영아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이용의 선택성 부여
- 부모, 사회적 필요가 아닌 아동인권에서 접근하는 보육철학 시도

### ●●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아의 안정된 / 점진적인 기관 적응.
  - (발달에 적합한 운영) 초기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영아를 배려한 순차적인 진행
-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육철학 정비
  - (영아보육) 수요가 많은 영아보육을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 (시간제보육) 운영방침을 조정함으로써 성인 입장의 접근이라는 오해를 정리하게 됨.
-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기반 구축
  - (사회적 홍보) 사회적 필요가 아닌 영유아 입장에서 접근하는 정책으로의 시각변화

### ●● 시행기관

- (영아보육서비스 체계 개편·설계 및 전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아보육) 2개 유형(정규운영, 요일운영)으로 운영
  - (시간제보육) 일회성을 지양한 사례 제시
- (서비스 실시)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육·보육의 통합접근 사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적용의 제한점/ 통합적 프로그램 적용 제한
  - 어린이집의 교육기능 제한: 정규교육과정 미개설
  - 유치원의 보육기능 제한: 야간보육 없음
  - 어린이집의 만3세-만5세(만5세 제외) 낮잠, 유치원은 낮잠 시간 없음
  -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 어린이집 놀이 중심의 돌봄
-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선택권과 서비스 질적 표준화 필요
  -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 제한
  -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질적 제고 필요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학 아동(만3세-만5세)
  - 영아를 제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학하는 공통적인 연령

## ●● 사업의 지원 내용

-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 표준화 설계

- 유치원 돌봄 기능의 보육 확대
  -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 보육시간 확대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취학 전 아동 보육·교육의 통합적 접근
  - 이원화된 부처에서 각 부처의 일원화된 통합적 전담부서를 통하여 운영

### ●● 사업의 차별성

- 명목적 누리과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현실적 적용 확대
  - 누리과정의 현실적 체감의 제한을 해소
  - 보육·교육의 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응
- 행정부의 통합적 전담부서를 통하여 통합적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성
  - 행정체계 일원화로 효율적인 전달 가능

### ●● 사업의 기대 효과

-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과 부모이외의 양육자 부재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선택권 확대
  - 전담 돌봄 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가정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없는 제한점 해소
  - 어린이집 아동 추가적인 교육을 위한 사교육 시간부담과 사교육비 지출 경감
  -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의 장점의 조합
-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권 강화
  - 누리과정의 실질적 현실적 적용 강화
  - 보육과 교육의 균형 및 조화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통합전담부서 마련

# 즉시 입소 가능 어린이집 찾기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 ●● 사업의 제안 배경

- 중간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가 주변어린이집에 전화로 입소가능한지 물어보는 불편함 해소 및 어린이집 입소를 용이하게 위해서임.
  - 이사를 하거나 갑자기 취업이 되는 경우등 어린이집을 급박하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보호자들이 주변 어린이집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남은 자리가 있는지 입소가 가능한지 물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우리동네 어린이집 찾기는 어린이집과 정원과 현원 각 반별아동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보호자들이 입소가능한지 알 수 없음(예를 들어 반별 정원의 표시는 보육사업안내에 표시 되어 있는 연령별 반인원을 정원으로 표시하지만 실제로 교실의 크기 등의 이유로 반별정원보다 낮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음).
- 어린이집 정원모집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100%정원모집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보호자들도 보낼 곳이 없다고 어린이집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많음. 남은 자리를 공개함으로 즉시 보내야 하는 보호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울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이 쉽게 우리 동네 어린이집 빈자리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함.
- 정원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
  - 반별 모집인원을 공개함으로서 빠르게 정원을 모집할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내용

- 어린이집별로 각 연령별 입소 가능 숫자를 정보공시에 제공
  - 어린이집 반별로 입소가능 자리가 생겼을 때 대기자를 통한 1차 모집이 끝나고 더 이상 대기자가 없을 때 모집인원을 사이트에 입력
  - 정보공시에 반별 모집인원을 부모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시 또는 앱으로(우리동네 어린이집 자리 찾아보기 등) 반별 입소 가능 숫자를 표시
  - 보호자는 입소 원하는 곳에 대기 등록
  - 어린이집은 대기등록을 통해 입소완료

### ●● 사업의 차별성

- 보호자가 원하는 즉시 입소가능
  - 현재 정보공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원과 현원을 보고는 보호자는 입소가능한지 알기가 어려움 때문에 어린이집에 일일이 전화를 하여 입소가능한지 물어봐야 함.
  - 어린이집 빈자리 알람을 통해 즉시 취업을 해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취업 후 아이들 돌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출산 후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줌.
  -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입소가능 자리를 볼 수 있어 이사를 가거나 일자리를 찾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보호자의 요구충족
  - 주변의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어 어린이집을 이사등의 변화가 있을 때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음.
  - 빠른 어린이집 입소로 취업의 보호자가 느끼는 보육공백을 줄일 수 있으며 맞춤형서비스로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어린이집 정원충족
  -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과 원아모집을 하는 어린이집을 빠르게 연결시켜주어 서로의 욕구 충족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5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 영아놀이지원 실현 <영아놀이지원비>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비용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보편적인 영아놀이지원 실현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을 추구합니다. 놀이중심보육과정은 영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영아에게 놀이는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반복되는 놀이를 존중하고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도록 새로운 놀이를 탐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아들의 발달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이의 제안은 당연히 필요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아기 놀이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 놀이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육수요자인 부모님들의 눈높이나 요구적 기대에 맞춰 생각해봐야 합니다.
  -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 져야 함이 당연하기에, 영아들에게도 놀이발달수준에 맞는 놀이지원으로 다양한 물적 지원과 인적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모든 영아들 산정 놀이지원
  - 만 0세 ~ 만 2세의 어린이집 이용 영아
  - 어린이집 현원기준으로 놀이지원비 월 산정지원
  - 영아놀이지원비 어린이집 운영비로 매월 안정적 지원제공

## ●● 사업의 지원 내용

- 유형별, 연령별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영아놀이지원 실현
  - 현재, 만3~5세의 누리운영비(인당 7만원)가 지원되어 아이들의 놀이지원을 위한 교재교구구입 및 안전을 위한 누리보조교사 채용 인건비로 사용가능하듯, 영아들도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놀이지원과 안전보장을 위한 놀이보조 채용 인건비 등으로 사용가능한 <영아놀이지원비>가 별도로 있어야함.
  - 실내·외 놀이활동 시 영아의 안전보장을 위한 교사지원(놀이, 안전도우미) 등
  - 인적자원에 따른 교사: 아동 비율의 완화 및 아동학대 예방적 환경조성가능
  - 보육수요자의 요구적 기대 및 눈높이 맞춤형 놀이지원 실현
- 표준보육비용 적정 수준 반영으로 안정적 돌봄 및 교육환경 제공
  - 영아반은 기본보육료와 기관보육료로 산정되어 지급되지만, 반별정원 100%일 경우만 운영이 가능한 표비로 산정되어있는 구조임. 반별정원에서 영아 1명이 미충족 시 담임교사 인건비지급도 어려움.
  -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최소한의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라 표준보육료만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현장에 적정수준의 표준보육료 지원반영
  - 저출산 및 운영어려움으로 영아놀이지원 제공에 어려움이 있기에, 표준보육료 만으로는 영아들의 놀이지원금이 부족하여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기 어려움.
  - 만0세~ 만2세 놀이지원금 : 50,000원
  - 영아 1명당 월 5만원 지원요청

## ●● 사업의 차별성

- 무상교육에 대한 포커스는 누리과정에 포함된 만3~5세 유아연령 뿐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연령이 포함되어야 온전한 <무상교육 실현>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 모색
- 유아를 위한 누리운영비 지원은 있었지만 영아들의 놀 권리를 위한 놀이지원금이 없었기에 놀이지원을 요청
- 신체조절능력이 부족한 영아들의 안전한 보육을 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과 오감자극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의 물적 지원으로 효율적이고 평등한 보편적 교육실현

## ●● 사업의 기대 효과

- 보육수요자의 눈높이 맞춤형 놀이지원
  - 부모요구도 충족에 의한 어린이집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부모의 만족도 상승효과
  - 고정적이고 충분한 놀이지원비로 영아들의 영아스트레스 해소 및 성장촉진
  - 오감자극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의 물적 지원으로 영아들의 균형적 발달도모
-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 이용증가 및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
  - 기임여성들이 출산전후에 <자녀들을 마음 편하게 맡길 곳이 보장되는 환경>, <돌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의 일환
  - 인적자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
  - 인적지원에 따른 영아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의 예방적 환경조성 가능

## ●● 시행기관

- 정부부처에서 시행.
  - 복지부 및 기재부에서 보육료 산정시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적정한 표준보육료 외에 유아반 누리 운영비에 준하는 영아들의 놀이지원비 산정되어 지원되어야할 것이다.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인한 보육공백 해소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비용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거주지 근처 보육기관 부족
  - 현재 거주중인 지역의 아동 수 대비 보육기관 부족으로 인하여 2년째 가정보육 중
  - 대기 가능한 어린이집이 3군데로 제한되어 거주지 이외의 보육기관 대기 불가능
- 구직불능상태
  -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취업의 기회 및 가능성 희박
  - 재취업이 되더라도 보육공백으로 인하여 취업포기 가능성 많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재취업 기관의 근처 보육기관
  - 거주지 근처가 아니더라도 취업하게 된 기관이나 기업 근처에 있는 보육기관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된 부모의 아동을 보육하게 된 보육기관
- 경력단절 부모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 기업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었던 부모에게 재취업을 제공한 기업
- 경력단절 부모
  - 대기 가능한 보육기관 수 증가로 인한 보육공백 우려 해소

### ●●● 사업의 지원 내용

- 관련 보육기관에 추가 재정적 지원
  - 아동 보육 중 재취업한 부모의 자녀를 보육하게 된 보육기관에 추가 재정적 지원
  - 아동 수 증가에 따른 비용 및 규모 확장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
- 재취업 기관이나 기업에 세제혜택제공
  - 연말 세금공제 및 기타 세제혜택제공
- 근로지 근처 보육기관에 추가 대기 혹은 근로 지연 계형 보육기관 제공
  - 직장 근처에 보육기관에 추가적으로 대기함으로써 대기 가능한 보육기관 증가기대
  - 혹은 직장의 의무적 보육기관 연계를 통해 취업 시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 ●●● 사업의 차별성

- 실질적인 혜택제공을 통한 경력단절 해소
  - 대기 가능한 보육기관 숫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공백해소
  - 보육공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 해소 기대
- 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취업의사는 있으나 보육기관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력단절 문제 원천적 해결기대

### ●●● 사업의 기대 효과

- 최소한 보육공백으로 인한 재취업기회 박탈 해소
  - 취업으로 인한 보육공백의 우려 해소
  - 적극적인 구직을 통한 경력단절 문제 개선 가능
- 경력단절문제 해결
  - 경력단절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대한 보완가능

### ●●● 시행기관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하여 제도적 보완책 마련 기대

#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산정방식 개선 필요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비용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어린이집 연장반 보육시간 및 연장보육료 산정방식 개선
  -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장보육이 도입되었습니다.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하여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한 보육을 이루어집니다.
  -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하원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가 생성되고 전자출결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00구 관내 어린이집의 3개소를 비교하였을 때 연장반의 시작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반의 시작시간은 A어린이집 16시, B어린이집 16시 30분, C어린이집 17시입니다.
  - 16시부터 연장반이 시작되는 어린이집도 연장반에 영유아의 인원수가 많아 기본반 교사가 연계교사로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 보육교사의 수업준비시간 부족
  - 기본반만 등록한 영유아도 1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해 보육교사가 업무과중이 초래되고 있으며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수업준비시간 및 서류업무시간이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장보육시간 산정은 16시부터 개선 필요
  - 연장보육시간의 산정시간을 16시부터 시작하여 연장보육 영유아의 안정된 보육환경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연장반 이용 영유아 및 학부모
- 어린이집 기본반 보육교사

## ●● 사업의 지원 내용

- 연장반 이용 영유아
  - 연장반 일과운영 중 16시~17시의 활동내용은 연장반 이동(아동 수 확인)개별 옷, 가방 등 정리, 기본보육 아동 하원, 자유놀이 및 휴식(섶) 및 통합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장반교사는 기본반 영유아를 하원지도를 하게 됩니다.
  - 연장 보육은 연령통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기본반 영유아의 하원 지도로 인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 영유아는 16시 이전에 하원을 하여 연장반 교사가 연장반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에 전념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기본반 보육교사
  - 기본반 교사는 16시 이후 보육실 청소, 수업준비, 서류업무, 휴게시간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 발생 및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시간 16시 이후 부터 산정
  - 연장보육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19시 30분까지 지원하는 보육으로 기본보육을 하는 부모가 17시까지 보육을 맡기는 연장보육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16시 이전에 하원을 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사업의 차별성

-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체계가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보육지원체계 세부내용에서 연장보육료 산정시간을 기존 17시 이후에서 16시 이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연장반 이용 영유아 및 학부모
  - 연장반 이용 영유아의 보육환경 및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 연장반 이용 영유아의 보육의 질 개선
- 어린이집 기본반 보육교사
  - 기본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최소화, 아동학대 예방
  - 기본반 보육을 위한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6

유아교육·보육  
취약계층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안전 팔찌)’ 지원 사업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취약계층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중 실종사고의 신고접수는 2만여 건으로 유지되는 상황
  - 최근 5년간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건수는 약 2만 건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아동실종에 대한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실종 장애인 중 장애아의 인원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예측됨.
  - 출산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종건수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은 아동비율에 비하여 실종비율이 최소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표 1 |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신고접수인원(미발견 인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월
18세 미만아동	19,870(3)	19,956(3)	21,980(6)	21,551(9)	19,146(36)	6,068(60)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8,542(5)	8,525(4)	8,881(8)	8,360(22)	7,078(20)	2,207(27)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04.).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통계표. 경찰청 내부행정자료 참조.

- 만 2세 이하의 영아 및 만 5세 이하의 장애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대상의 높은 실종 가능성
  - 상황파악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영아는 보호자가 높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종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많은 인원의 영아를 돌보아야 하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는 특히 영아 실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의사표현과 전달이 어려운 장애인,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아의 경우 기관 밖을 배회하거나 야외활동 시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실종사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실종예방 정책 적용 필요
  - 다중이용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내에서 여러 명의 원아를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바깥놀이, 견학, 외부행사 등의 활동 시 실종 관련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더욱이 장애아 혹은 어린 연령대의 영아의 경우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많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실종 취약계층 대상아동
  - 만 2세 이하의 영아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 (혹은 장애아가 속한 반의 아동 전체)

### ●● 사업의 지원 내용

- 영유아 대상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전 팔찌' 지원
  - 지원 우선순위: 장애아가 다수 배치되어 있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급)', 영아가 배치된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이유: 의사표현이 불명확한 영아와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되, 가능하다면 장애아가 포함된 전체 학급의 비장애아 아동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를 제안함. (집단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명찰, 이름표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기대)
- 디지털 뉴딜을 반영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전 팔찌'의 ICT 기능
  - 경찰청의 안전관리 앱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되, 기술적·비용 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중요도가 반영된 아래의 순번대로 기능하기를 제안함.
    - 1) 안전사정거리를 벗어날 때 알람 경보 기능 : 비콘방식의 영유아 동선 감지시스템을 적용
    - 2) 위치추적 장치 탑재 : 어플을 활용하여 필요시 위치확인을 가능하도록 함.
    - 3) 아동정보관리 기능 : 연동된 앱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며, 실종사고 발생 시 경찰서로 즉시 신고 가능한 시스템 도입. 반대로 기관 외부에서 실종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서 팔찌의 NFC 태그 확인을 통해 기관/가정으로 무사귀가 조치할 수 있음.

## ●● 사업의 차별성

- 경찰청의 사전 지문 등록 시 실종예방 안전팔찌활용에 관한 정보동의를 함께 받음.
  - 보호자에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 팔찌 활용 시 아동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 동의를 받음으로써 “지문등록 보호” + “안전 팔찌 보호”를 연계하여 가정과 기관에서 촘촘한 아동 보호망을 만들 수 있음.
- 기존의 위치추적 팔찌에서 알람 추가기능을 탑재하여 다기능 요소를 고려
  -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팔찌, 목걸이 등이 기존에 개발되었으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널리 활용되어 오지는 않았음. 바깥놀이, 견학활동, 외부행사를 할 때 아이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하여 설정해둔 활동반경을 벗어날 때 알람이 울리는 기능을 함께 탑재하여 기존의 외부활동용 이름표나 명찰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사업의 기대 효과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약계층 아동의 실종예방
  - 아동인원수에 비해 적은 교사인원수에 따른 아동 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견학, 바깥놀이, 행사 등 외부활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미아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킴.
  - 장애아동 배회사건, 영아 실종사건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교육·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신뢰감 향상
  - 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감 상승의 기회가 됨.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만족감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가아동보호체계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아동 실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축소(정익중 외, 2009)
  - 실종아동이 원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보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아동의 문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비 역시 사회적인 손실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실종아동가족 대상 131사례의 설문결과에서 직접비용(교통비, 숙박비, 의료비, 홍보비 등) 이외에도 간접비용(시간비용, 잠재비용)이 크게 소모되는 것으로 확인됨.

## ●● 시행기관

- 사업은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둬.
  - 주관기관(경찰청): 주관기관으로는 아동의 실종아동의 신고, 접수, 조회, 전산입력,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실종아동 수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찰청(아동청소년과)을 제안하며, 필요시 협력부처

- 로는 실종 및 유괴 예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실이 있음.
- 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 지자체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 적용을 위해 지자체 내의 교육청 및 시군구청 등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 사업의 큰 틀은 경찰청에서 계획을 하되, 시행은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의 인원, 이용시설 등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함.

# 경계성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사지원

정책영역

유아교육·보육 취약계층 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장애아로 인정 전 영유아의 적절한 보육
  - 현 실정(장애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로 등급 신청이 된 영아 3명당 장애전담교사 1명 지원)
  - 교육 현장의 20년 이상 있으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행동? 과잉행동, 약간의 자폐증상 등 일반 영아들과 함께 활동 시 교사 및 타 영유아들의 활동에 융화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어 교사 및 타 영아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 많이 초래됨.
  - 같은 반 학부모의 경우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시 본인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싫어 하는 상황
- 경계성 장애 영아를 가진 학부모의 경우
  - 장애로 등급을 받기를 꺼려하고 중증의 장애 전담의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
- 경계성 장애 영유아로 인해 일선 교사가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 ●● 사업의 지원 대상

- 장애로 등급을 받지 않고 경계성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
  - 경계성 장애 영유아
  - 경계성 장애 유아를 가진 부모를 대상(치료사와 함께 상담하며 진행)

## ●● 사업의 지원 내용

- 교사 지원
  - 전문 장애 교사나 심리치료, 놀이치료를 위한 교사 배치

- 전문교사 배치로 부모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 나가는 제도 마련 시급
- 현 보육교사의 경우 부모와 경계성 장애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모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담당하기 힘들어 함.
-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볼 수 없는 통합보육
  - 경계성 장애 영유아로 인해 일어 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줄이고 해당 영유아를 일반 아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요구됨.

### ●● 사업의 차별성

- 장애 전담, 장애 통합의 어린이집 운영
  -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
- 경계성 장애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제안
  - 맞벌이 부모들로 인해 경계성 장애 영유아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점점 심해지거나 시기를 놓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없애준다.
  - 전문 치료사(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가 부모와 교류하며 영유아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치료에 집중하여 개선이 되어 가는 보육 실시

### ●●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지원
  - 교사 : 늘어나는 경계성 장애 원아에 대한 보육 부담에서 벗어나는 교사
  - 경계성 장애 원아 : 적절한 치료제공으로 일반 원아와 원활한 활동과 다른 영유아로부터 이상한 아이로 낙인찍히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를 가짐.
  - 같은 반 영유아 : 경계성 장애 영유아로 인해 교사가 전념함으로써 활동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물기, 꼬집기, 던지기 등 난폭한 행동)을 확보할 수 있는 점
  - 경계성 장애 영유아를 가진 학부모 : 타 부모의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맞벌이 부모의 경우는 타로 시간을 내어 치료센터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어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하지 않아서 부담을 줄인다.
  - 경계성 장애 영유아가 있는 타 학부모 : 치료를 요하는 원아의 행동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염려나 타 여러 행동을 우리 아이가 따라 하는 등, 반 분위기를 흐려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줄여주고 마음 놓고 보육을 맞길 수 있는 장소로 여김.

### ●● 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7

양육지원



# 가정 양육 지원: 부모교육 내실화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저는 미취학 아이 삼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7살 6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연년생 두아이만 있었을 때 전 맞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 밀려서 두 아이를 같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고 각각 다른 기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 유치원처럼 형님들이 재원하면 동생은 100% 입소가 가능하게 꿈 어린이집에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문화 가정이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전 구로구에 살고요 구로구에 다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다문화인들은 너무나 쉽게 국공립에 입소하게 되고 자국민들은 아이가 3명인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국공립은 들어갈 수 없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돌아가는 혜택들이 너무 크기에 다문화 가정에 자국민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와 자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자국민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다문화 가정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구로구에 간판들이 중국 간판들이 참 많아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중국인걸까 느껴질 정도로요. 메뉴판도 중국어라 읽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구로구가 중국인이 많아지고 이곳이 중국인들만 사는 곳이 아닐까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많이들 7살에 이사 가고 초등 저학년 때는 많이 구로를 떠난다고 들어요.

## ●● 사업의 지원 대상

- 코로나 시대로 가정보육이 많아지면서 엄마들이 고스란히 교육과 보육 등 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제도도 이웃사람과 친하여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제 보육이나 돌봄 등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시간제 보육은 36개월 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서 이미 36개월이 지난 우리 아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리고 시간제 보육은 코로나 단계가 높아 질수록 이용할 수 없게 없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이 가능하지만 시간제 보육은 긴급보육이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도 열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연년생 삼남매를 키우면서 저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이 한명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연년생 세 명을 저 혼자 보려니 참으로 힘들더군요. 탈모까지 왔고요. 물론 배우자와 어린이집의 도움도 많긴 하지만, 우울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종종 이용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많은 오명을 갖고 있지요?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삼남매 육아 휴직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만 허용이 된다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부하였고 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통 만 1세부터 아이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써도 어린이집에 입소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취업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도 경력단절로 7년째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써도 아이들이 어리면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실업률이 많으니 4시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도 늘어나면 좋을 거 같고요.

## ●● 사업의 지원 내용

- 부모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여성 엄마들만 부모교육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도 들을 수 있게 회사에서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부부 교육부터 먼저 배워야 하고 이를 결혼하기 전 아니면 신혼부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교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천하고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할 때 이런 제도를 홍보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율도 줄어 들고 부부싸움이 자주 잊지 않으면 아이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될 거 같습니다.

### ●● 사업의 차별성

- 아버지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줌 교육으로 들어봤는데, 참여자는 많았으나 실제로 비디오 화면을 켜고 열심히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육아에 전담하기 보다는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의 신랑도 육아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들이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부모교육을 한달에 한번 씩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녔을 적 성교육을 받긴 했는데, 여성집단이라 교육은 안해 주고 사인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부모교육 부부 교육을 듣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혜택을 주는 방향을 도모했으며 좋겠습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다문화와 화합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알릴 수 있고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입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들도 육아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육아를 하여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청소년시기에 반항하지 않고 잘 큰 이르면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면 좋겠지요 ~ 요즘 대면 사업이 어려우니 비 대면으로 줌이나 밴드 활용으로 부모 교육을 해주신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 저출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정책들만 내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내놓아 다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3명을 낳아도 4명을 낳아도 엄마가 아빠가 힘들지 않은 세상. 돌봄 지원을 크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 시행기관

- 사업을 시행한다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구청에서도 지원이 있어야겠지요? 육아 어린이집 관련에서는 지자체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들이 도움을 받아 사업을 성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모 교육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결혼(혼인신고) 전의 예비 부부 교육
  - 결혼에 대한 책임감 증가로 이혼율 감소
  - 가족 구성원의 확대로 생기는 문제해결 방법 등  
: 결혼생활에 환상을 갖고 시작하나 결혼 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극복하기 보다는 쉽게 회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 예비 부부교육을 혼인신고 전에 의무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
- 출산 전의 예비 부모교육
  - 출산 전 아기 돌봄 실습교육, 건강관리,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
  - 급증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 출산장려금(수당) 신청 시 예비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출산장려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아기 돌봄에 대한 지식 및 문제해결능력 습득

## ●● 사업의 지원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랑, 신부
- 출산을 앞 둔 부모
  - 예비 아빠, 예비 엄마

### ●● 사업의 지원 내용

- 예비 부부 의무교육 실시
  - 기존의 임신육아포털과 각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교육이 있지만 아이가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수강할 기회가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한다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함으로 결혼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 예비 부모교육 제도화
  -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참된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변화되는 생활 리듬과 육아 스트레스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교육을 통해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

### ●● 사업의 차별성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각 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이 많지만 예비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가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고, 좋은 부모는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 정보를 얻지만, 그 외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은 관리밖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정책으로 수립하여 제도권 안에 둔다면 선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으로 모두가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별도의 예산수립 없이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예비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다뤄봄으로써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예비 부모가 되기 전 사전교육을 통해 부모 됨을 학습함으로써 산후 우울증, 육아스트레스, 아동학대(영아 유기, 영아 성폭행, 영아 살해 등)를 예방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제한하자면 미혼 여성이 예기치 못한 출산을 할 경우 영유아까지 성장 할 동안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절실하다. 정상적인 가정의 선심성 영아수당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미혼모와 보육원 출소 시 자립자금으로 지원한다면 소외계층이 느끼는 사회는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출산장려금 지급기관)

# 다자녀 플러스 꾸러미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육아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다자녀를 위한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 아이를 키워보니 두 명 다르고 세 명 다르고 네 명 키우는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비례해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다자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느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다자녀 가정

## ●● 사업의 지원 내용

- 다자녀가 3명에서 이제는 두 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이 한 명당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여 3억 896만 4천원으로 정말 많이 든다. 물론, 2022년부터 중위 소득 200% 이하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점점 늘어나니 셋째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아이가 많다보니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아이가 많아질 때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을 하므로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자녀를 위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 건강보험료 등도 차등 적용을 하여 실질적으로 적게 내고 다자녀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사업의 차별성

- 저는 4명을 키우는데 남들 두 명 키우는 것의 두 배는 키운다.  
그러므로 양육 수당을 줄 때 ex) 첫째 -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 넷째 50만원 이렇게 많이 낼수록 더 혜택이 가게 하고 세금도 아이가 많을수록 더 적게 내야 자녀 돌봄도 다자녀에게 먼저 혜택을 주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3자녀 이상의 가정은 소득분위를 나누지 말고 모두 지원해주어야 한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다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늘리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생각과 아이를 많이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아이를 낳는데 덜 고민하고 더 많이 낳을 것이 기대된다.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다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설문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다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과 혜택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아서 다자녀 가정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 통합적 부모교육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부모교육의 필요성
  - 한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교사는 부모임. 따라서 부모 됨을 준비하고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부모교육이 필요함.
  - 적기에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함.
- 문제점
  - 경계성 발달 지연을 나타내는 영유아 증가
  -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조부모, 돌보미,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등 대리 양육으로 보충하여 영유아의 안정 애착 형성 저해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작용
  - 양육 지원 부족은 영아기 부터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로 아동 폭력성 증가
- 제안 목적
  - 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모 인식 개선으로 양육이 기쁨 될 수 있도록 함.
  - 양육이 한 가정만의 몫이 아닌 사회, 국가적 책임임을 자각도록 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기관 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기간은 만0세~만5세까지여서 부모교육하기에 적기임.
  - 연령별로 발달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부모 (조부모, 돌보미 포함)
  - 근로 환경을 유동적으로 개선하여 부모교육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수당 지급)
  -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 파악하여 사례별, 요구별 교육 지원
  -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가정 방문교육도 지원

### ●● 사업의 지원 내용

- 교육기관 지원 (어린이집)
  - 다양한 분야의 강사풀(예: 아동 권익 증진, 놀이지도 등)을 운영하여 필요한 분야의 강사 파견
  - 입소부터 졸업까지 다양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어린이집 공간이 교육하기에 미흡한 경우 인근 공공기관과 협약하여 몇 개의 어린이집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모(조부모, 돌보미)
  - 양육태도, 심리검사 등을 실시 (부모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
  - 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해 가정방문 지원
  - 아동의 문제 행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정서적 지원

### ●● 사업의 차별성

- 통합적 지원
  -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통합적으로 실시
- 지속적 시행
  - 부모교육은 일시적, 단편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여 입소부터 졸업까지 단계별로 실시
  - 교육 방법, 대상 등의 차별화, 다양화, 전문화

### ●● 사업의 기대 효과

- 경계성 아동 감소로 인한 업무 경감
  -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여 아동 문제 행동 감소로 이어져 교사의 업무 경감

- 국가에서 부모교육 강사를 파견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 경감
- 부모
  - 양육 효증감 증진되어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양육에 대한 책임감 증대로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보다 집중
  - 심리적 지원에 의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

### ●● 시행기관

-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부 주도 실시

# 양육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중시한, 맞춤형 지역기반 육아SNS '편키포키'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으로 민간·사립 위주의 기관 편중, 공·사립 유치원 간의 격차, 설립 유형별·규모별 어린이집 간의 격차 등으로 볼 수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인프라 비중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비중이 약 10%에 불과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 있으며 육아와 관련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현 유아교육 및 보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속 모바일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정보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공데이터인 유치원 공시정보의 오픈API 등을 활용하고 사용자의 정보입력 및 카테고리 설정에 따른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원천데이터 확보와 시를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육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중시한 맞춤형 지역기반 육아SNS '편키포키'를 기획하게 되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편키포키’는 FunKidsForKids의 축약어로 아동의 행복증진에 기하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육아를 하는 양육자를 중심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해당된다.

## ●● 사업의 지원 내용

- ‘편키포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공데이터인 ‘유치원 공시정보’ 오픈API을 기반으로 현재 위치 반경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시설유형 및 특성별 검색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기관의 위치지도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자녀의 나이 및 지역)에 따라 육아정보 및 교육과 관련한 통합적 서비스 플랫폼을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을 둔 지역기반 육아 SNS를 통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로 인해 보육 및 교육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용자 맞춤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정보를 체크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 맞춤형 서비스 시나리오

- 사용자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을 설정하여 설정한 자녀의 나이로 정보제공 및 뉴스피드의 첫 번째 알고리즘을 결정한다.
- 사용자의 관심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설정하여 그 알고리즘에 맞는 정보를 제공 한다.
- 사용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표시하여 자신의 지역 SNS에서 시작한다.

#### 나.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한 맞춤형 어린이집 서비스 및 소셜 네트워크 구축한다.

- 사용자가 저장한 위치를 기반, 어린이집의 정원 및 보육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다.
- 사용자의 위치기반 지역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뉴스피드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 또한 SNS를 통해 자신의 소식 및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다.

-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하여 만들어진 빅 데이터로 양육자의 정서를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용, 시간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 반응 및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 사업의 차별성

- 현재 오픈마켓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기관의 알림장 개념으로써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 사항들을 피드백 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지역기반의 육아 SNS를 통하여 양육자가 실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사항들에 대해서 데이터분석과 AI 기술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출시된 육아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맘 카페들은 양육자가 원하고 정확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편키포키'는 정보전달에 있어서 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더불어, 사용자의 자녀나 이와 관심분야에 따라 생성된 빅 데이터 분석에 따른 정보를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지역기반 육아 SNS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함에 따라 맞춤형 보육정책의 확립할 수 있으며, 지역 어린이집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 자료를 통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 극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지원정책의 진행현황 모니터링을 하여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아동의 행복 증진에 기할 수 있다.

## ●● 시행기관

### 가. 소셜 미디어 분석

국민 여론, 불만요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국민정서분석이 가능해지며 부처 및 지자체 예산 분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나. 투명한 정책 수립 및 집행

모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 다. 다양한 서비스 개선 기능

국민정서분석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정책 수립 시 정책 지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정책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장애아/다문화지원 등)

### 라. 공공데이터 활용의 효과

보육 사업지원 체계 측면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행·재정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및 부모의 정보이용 편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 ‘나는 부모다’ 부모교육 의무제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우리는 갑을관계가 아닌 함께 하는 보육파트너
  - 보육, 교육기관에 보내는 이상 보육과 교육은 교사만의 책임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요즘 현장을 보면 책임전가, 비협조, 무리한 요구 등 상식 외의 행동을 하는 부모님이 많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허다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무조건 교사 잘못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를 밝힐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데 현실은 교사도 아닌, 보육파트너도 아닌 단지 돌봐주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영유아의 성장을 이끌어 주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
- 교사만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함께 의무교육 실행
  -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가정’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교육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지 의문이다. 부모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준비된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줄어 들고, 교육기관에 보낼 때에도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잊고, 시기에 맞춰 잘 수행한다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예비부모교육
  - 시기에 적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행한다.

- 영유아기 부모교육
  - 영아, 유아기 시기에 적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행한다.
- 청소년기 부모교육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시기에 적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행한다.

### ●● 사업의 지원 내용

- 시기별로 알맞은 부모교육 커리큘럼
  - 자녀의 양육시기에 맞게 알맞은 주제로 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연 2회로 시기에 맞는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 부모교육 접근방식
  - 의무 교육인 만큼 접근성이 쉬어야하므로 동영상 강의를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 교사와 협력관계임을 전하는 교육
  - 일대일 보육 또는 교육이 아님을 전하며 무리한 요구,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교육은 필수로 듣는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입학 초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 사업의 차별성

- 자율교육이 아닌 필수교육
  - 기존에 교사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주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인 교육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교육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원하는 부모만 듣게 되므로 부모교육의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부모님도 부모교육을 필수로 듣고,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부모의 자질을 높이다
  - 양육, 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올바른 길을 이끌어 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 등을 심어줄 수 있다.

- 교사-부모관계성 높다
  -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한다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부모, 교사,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교사로서는 교사의 업무가 민원처리가 아닌 더 훌륭한 교육관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부(학부모 On누리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유아학교가 된다면 시행기관은 교육부로 하며, 부모교육 전용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게시판을 활용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활용한다.

# 산후조리원의 재원 부모 대상, 정서조절 및 양육 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 사업제안 배경 : 부모 교육의 적기

본 연구자들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수년 동안 부모를 대면하고 상담하면서 정서조절 및 양육효능감에 관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느 시점에서의 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본 사업을 제안해본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생후 1년 이내에 부모를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때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되며, 향후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첨단화되는 사회 속에서 부모 자신부터 스마트기기 및 SNS 과 의존 등의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어 ADHD 등의 정서장애를 갖게 되고, 이것은 가족 간의 갈등 및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저출산이 늘어나는 가족형태 속에서 부모는 경험 및 정보부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부모들은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인지하기 쉽지 않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올바른 부모상을 정립하고 부모 본인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서조절 및 양육 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며, 이 부모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할 시기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임신 중인 부모, 출산 직후의 부모라고 판단이 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많은 부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부모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으며, 산후조리원의 프로그램이 산모들의 산후조리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 전 예비부모와 산후조리원 재원 부모를 위한 정서조절 및 양육 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사업 목적

- (1) 모든 영유아의 발달은 부모의 정서조절 및 양육 효능감, 부모 역할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출산 전후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다.
- (2) 부모의 다양한 양육 방식과 부모가 가지는 정서적 신념이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모가 정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3) 최근 산후조리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동향을 살피고 부모교육을 통해 정서조절 및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업의 지원 대상

-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 부모로서의 정서조절 및 양육방법을 계획해 볼 수 있다.
- 임신 중인 부모
  - 태교를 통해 부모가 됨을 인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다.
- 출산 후 부모
  - 원 부모에게 받은 양육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 사업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자료에서 산후조리원 재원 및 초산 산모들의 요구를 참고하여 목표에 맞게 구성하였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 프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재원 초산 부모들의 정서조절과 양육 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나의 정서 이해하기>, <산모와 영아의 정서>,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3단계를 목표로 두었다.
- 프로그램의 구성
  - (1) 1단계 : 나에 대해 알고 나의 정서를 이해한 부모상
  - (2) 2단계 : 산모의 정서발달과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3) 3단계 :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효능감

•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차시	주제	목표	세부내용	특별 프로그램
1	정서 이해하기 (나는 누구?)	나에 대해 알아보고, 내 정서를 이해해본다.	1. 자기 이해의 중요성 2. 다양한 접근으로 알아보는 자기 이해 3. 있는 그대로의 나 사랑하기	MBTI -성격유형검사
2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을 그려본다.	1. 원부모를 통해 나 이해하기 2. 나를 통해 내 아이 이해하기 3. 이상적인 부모상 그려보기	천연화장품
3	산모와 영아의 정서	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한다.	1. 아이의 특성 파악하기 2. 기질 및 성별에 따른 양육방법 알기 3. 발달수준에 따른 부모역할 알기	인형 만들기
4	(내 아이가 궁금해)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애착 형성 방법을 안다.	1. 아이 신호 민감하게 파악하기 2. 신호에 즉시, 일관성있게 반응하기 3. 다양한 방법으로 애착 형성하기	토피어리
5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한 양육	양육 시 부모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1. 역할 분담을 통해 부부 갈등 감소시키기 2. 아내와의 관계 향상 3. 아이와의 친밀감 향상	다육캔화분
6	(아빠도 중요해)	부부가 아이를 함께 육아하면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강화한다.	1. 부부간의 양육 스타일 존중하기 2.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내려놓기 3. 부모 양육 효능감 강화하기	부모 양육태도검사 PAT

●● 사업의 차별성

- 산후조리원이라는 특수성  
조리원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같은 상황의 부모들과 함께 올라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정서조절과 양육태도를 알아보며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 사업의 기대 효과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 자신 및 올바른 부모상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양육 태도를 습득하여 자녀를 독립적인 권리와 주체로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부모교육을 통해 예비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자녀를 둔 부모는 바람직한 자녀관을 형성하고 자녀발달에 관한 기초지식과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습득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 및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다자녀 가정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다자녀 가족을 위한 택시 지원
  - 자녀수가 3인 이상일 경우, 부모 포함 5인이 되면 한 택시로 이동이 불가함. 영유아 2인 이상일 경우에도 택시 이동시 보호자 한 명이 케어가 어렵고, 카시트 장착이 어려움. 다자녀가 이동할 때 안전상의 문제와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필요
- 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배려
  - 영아 수가 많은 경우 입구가 멀면 이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영아 2인 이상 혹은 미취학 아동 3명 이상일 경우에는 통제가 어려움.
- 다자녀 가족을 위한 교통비 할인 관련 정책 확대 및 개선
  - 국공립 시설 주차비 할인 정책이 있으나, 지역이 다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지방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음. 여행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 필요
  - 기차표 구매시 성인 탑승 인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성인 1명이 아동 3명이 탑승하는 경우 혜택 받을 수 없음.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할인 지원 필요
- 다자녀 가족 차량 구매 지원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완화
  - 다자녀(3자녀 이상)인 경우 5인승 차량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큰 차로 바꾸는 경우가 많음. 카시트 3개를 장착할 수가 없고, 4자녀 이상인 경우 5인 승용차 불가. 중형차로 바꿀 때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저귀 바우처, 영양플러스 등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불리함. 불가피한 상황으로 차량 구매를 하는 경우 이므로 다자녀 인센티브가 필요함.
  - 자녀 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 차량 구매 금액 지원 또는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함. cc와 차량 가액 등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큰 자동차를 선택한다

고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은 아님. 오히려 더 많은 지출로 가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영유아 2인 이상을 포함한 가정
  - 미취학아동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영아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동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 사업의 지원 내용

- 다자녀와 영유아 2인 이상인 가정 이동을 위한 택시 지원
  -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시스템으로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는 영유아 이용 전용 택시를 지원하여 다자녀 및 영유아 2인 이상 가정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함. 예전에 '타다'와 같은 7인승 이상의 밴, 기사 금연, 자동문과 자동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음. 승차 거부가 없고, 영유아를 데리고 밖에서 오랜 시간 택시를 잡는데 애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유모차 등의 짐을 실을 수 있으면 좋겠음.
- 영유아 2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배려
  - 장애인 주차, 여성 전용 주차와 같이 영유아 2인 이상 또는 자녀가 많은 가정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이용권을 제공하는 정책 필요. (2인 이상일 경우 대상자가 많아 정책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영유아 3인 이상 또는 영아 2인 이상을 고려해도 관참음).
- 다자녀 가족 교통비 할인 관련 정책 확대 및 개선(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기차비)
  - 다자녀 가족 국공립 관련 시설 이용 시 주차비 할인이 지역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확대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
  - 기차표 구입 시 성인 탑승 기준을 폐지하고, 한 명의 보호자가 여러 아동을 데리고 탈 경우에는 오히려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자녀수에 따라 할인 폭을 크게 적용하여 기차비 할인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필요.
- 다자녀 가족 차량 구매 지원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완화
  - 다자녀의 경우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 크기를 제외하거나 기준 변경 필요

- 4자녀 이상인 경우 불가피하게 5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세 또는 차량 구매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전기자동차 구매시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가구원수 증가로 인한 차량 구매 시 특별 지원 정책 필요

### ●● 사업의 차별성

- 다자녀 가족을 위한 택시 지원, 영유아 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배려
  - 기존에 없었던 정책이지만, 어린 자녀가 많은 경우와 자녀가 많은 경우의 이동 불편함을 고려한 정책임. 자녀 키우는 것이 좀 더 편해지는 문화 조성을 할 수 있음.
- 교통비 할인(주차비 전국적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기차비 할인 정책 개선)
  - 기존 정책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없애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것
- 다자녀 가족 차량 구매 지원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완화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차량 구매로 다른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가구원수 증가로 인한 차량 구매 및 추가 지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동차세 또는 차량 구매 금액 지원 등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다자녀 가족을 위한 택시 지원, 영유아 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배려
  -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좀더 편하게 어린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음. 양육 스트레스 절감과 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 교통비 할인 및 차량 관련 정책 확대 및 개선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차비 할인, 기차 운임비 할인 등의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족이 누리지 못한 사각지대 해소로 정책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자녀수가 많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량 구매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정책 실효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 시행기관

- 다자녀 가족을 위한 택시 지원
  -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 부서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이동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면 좋겠음.
  - 은평구, 강동구, 광진구 등에서 아이 맘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이 한정적이고 신청 횟수도 제한적임. 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기존 사업도 많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영유아 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배려
  - 국토교통부
- 교통비 할인 및 차량 관련 정책 확대 및 개선
  -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비부모/부모교육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 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건강한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최근 아동학대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예비부모/부모교육은 관련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인 메타버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며, 이를 적용하여 육아정책에 접목시켜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음.
  - 고도화된 기술로 공감각적 체험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짐.

## ●● 사업의 지원 대상

- 자녀 출산(입양)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
  - 예비 신혼 부부 및 신혼 부부 등 자녀 출산(입양)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부부 혹은 커플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
  -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이 필요한 부모
-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부모
  - 자녀 양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부모

### ●● 사업의 지원 내용

- VR 가상체험을 통한 예비 부모 체험
  - 자녀 출산(입양) 계획이 있거나 자녀 출산(입양)을 앞 둔 부모들에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의 공간으로 자녀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줌. 혹은 자녀 출산에 대한 환상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습 부모 수업
  - 상담 혹은 치료 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직접적인 개입을 가상현실을 통해 구현하여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I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예상 답변을 입력해 놓은 뒤 부모들의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가능하게 하여 수업에 배웠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줌.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부모교육교실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일 방향적 수업이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의 장을 형성. 한 주제의 부모교육 수업이 아닌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수업을 플랫폼에서 열어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 가능.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부모들끼리 수업에 대한 내용을 나눌 수 있으며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 사업의 차별성

- 경험효과
  - 현실기반의 직접경험으로 기억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체감도를 높여 실제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음. 더불어 부모교육 참석자들의 몰입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가능.
- 시·공간 제약 탈피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모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부모교육수업들은 한 주제를 갖고 진행했으나 다양한 주제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참가자를 불러올 수 있음. 이는 정보격차 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및 가정 내 범죄 감소
  - 미리 다가올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정 내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훈련 등을 통해 올바른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출산 혹은 입양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줄어들고 부모의 책임감을 몰입감 있게 느끼고 양육기술 및

부모역할과 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으로 인해 가정 내 범죄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분야와 접목시킴으로서 현재까지 없었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생기며 이는 디지털 역량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 뉴딜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실시될 수 있음.

# 부모교육 의무화

## – 똑똑한 부모, 공부하는 부모

정책영역

양육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부모교육의 중요성\* 강화

- 보육공공성 확대와 대조적으로 현장에서는 부모의 기본 역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체계화 필요)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을 체계화할 필요 있음.
- 기초 양육정보(상호작용, 훈육...), 연령별 자녀이해, 시설이용 에티켓, 아동학대 의심사례 시 관련 절차 등 부모로서 숙지해야 할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

\* 제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중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교육 강화 연계

-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국가·사회적 인식변화가 요구됨.

- 아동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 부모 및 관련 성인의 아동 인권교육은 필수적임.
- 양육서비스 지원의 선제 조건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배려를 높임.
- 최근 드높아진 인권감수성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부모, 예비부모, 대학생)

### ●● 사업의 지원 내용

- (부모교육 이수) 홈페이지를 통해 양질의 공인된 콘텐츠 제공

- (체계화) 유관기관\*\*의 다양한 부모교육 체계 정비 및 통합, 홍보자료 공유.  
\*\*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 (컨텐츠 정비/유지) 부모소양교육, 아동권리존중, 아동학대예방, 어린이집 이용에티켓, 아동인권 관련 사회현안 및 사례소개 (예 :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비스 유형) on-line 중심 서비스 제공. 필요 시 인증 가능한 off-line 포함
- (운영) 월 1회 이상 수강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 제공
  - (필수) 아동수당,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입소 지원 시 선제 조건으로 활용
  - (선택) 마일리지(점수화)로 적립, 기념품을 지급, 수수료·문화시설이용료 우대/면제 등
  - (대상자 차별화) 대학생의 경우 교양필수 학점, 또는 청년수당 선결 조건으로 독려
- (이수자 선별/기록) 보육통합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활용한 자동 누적 기록

## ●● 사업의 차별성

- 국가 수준의 부모교육 체계 마련
  - (일회성 교육 행사 지양) 일회성, 행사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부모교육을 지양함.
  - (체계화, 지속가능성)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부모교육을 정비하여 보다 질적으로 검증된 콘텐츠를 엄선하여 공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함.
  - (자료의 활용성)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교육에 부담을 갖기 쉬운데 이에, 어린이집 규모, 주제에 따라 선별하여 활용 가능함.
- 부모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
  - (부모역량 강화) 높아진 참여도와 관심도만큼 높아진 부모역량을 기대할 수 있음.
  - (보육 일관성 확보) 부모가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일관성 있는 보육환경 마련
  - (부모와의 소통) 교육만족도 및 사후평가를 통해 부모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위기가정 관리 및 지원
  - (모니터링 효과) 부모교육 이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위기가정을 선별하여 대비함.  
\*\*\* (예) 예방접종 미실시 가정, 장기 결석 가정 모니터링 실시.

## ●● 사업의 기대 효과

- 부모/예비부모의 자녀양육 정보제공
  - (부모 역량강화 정보제공) 한 번도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예비부모,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모/예비부모(청년)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과 배움의 인프라 제공

- 부모-어린이집 사이의 신뢰 구축
  - 양육철학 공유로 신뢰감,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및 의심 사례 감소
- 국가정책 홍보창구 확보
  - 아동정책, 보육정책,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 홍보의 통로로 활용 가능.

### ●● 시행기관

- (부모교육 체계 개편 및 설계) 육아정책연구소 또는 진흥원
  - 각 기관의 부모교육 통합관리, 기본소양 교육내용 정리
  - 다양한 적용사례, 어린이집 활용사례(컨텐츠 이용방법, 토론 등) 제공
- (부모교육 내용 개발 및 설계) 진흥원, 중앙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 상황에 맞는 부모교육 내용 및 일정 수립
- (부모교육 실시 및 이수관리)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8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정책영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 사업의 제안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보육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관을 퇴소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사례가 많아져서인지 19년~21년 사이 가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유독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0년 10월에 발생한 양모에 의해 학대받던 중 숨진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양육 수당의 지원(단, 경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지역 노인 복지관
  - 실버 인력뱅크 사업을 통해 양육수당 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 지킴이' 어르신들의 급여 지원
- 지역 육아 종합지원 센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앱 개발 및 운영비 지원

## ●● 사업의 지원 내용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어르신 도우미 채용
  - 양육 수당 지급 전 1개월 1회씩 어르신 도우미를 채용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의 안전 확인 후 양육 수당 신청 자격 부여
  - 양육하는 자녀 안전 미확인 시 그 달의 양육 수당 신청 자격 상실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어르신의 경우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정기 교육 실시 후 양육수당 신청 가정으로 파견
- 양육 수당 신청 앱 만들기
  - 양육 수당을 앱으로 신청하게 하고 신청 전 부모 스스로 ‘아동학대 발생 징후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자신들의 아동학대 위험도를 자가 측정하도록 한다.
  - 양육수당 신청 조건을 만들어 연간 상·하반기 1회씩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다.
  - 아동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앱을 운영하게 하고 부모 상담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치료 연계

## ●● 사업의 차별성

-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 예방 절차를 만들어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 부모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라는 어르신 봉사자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차별화 된다.
  - 양육수당 신청 앱을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체크리스트로 자가 측정하고 부모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점
- 양육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임.
- 

## ●● 사업의 기대 효과

-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양육수당과 연결하여 아동학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지킴이가 방문하여 아이의 안전을 직접 확인
  - 양육수당을 앱으로 신청하면서 신청 전 과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게 하

- 여 스스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하고, 년 2회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음.
-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을 지정하여 심층 관리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부모상담, 자녀의 문제 행동지도 등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 제시
- 가정별 아동학대 예방관리 실시 및 자료 축적
  - 양육수당 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나 또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가정별 아동학대 예방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
-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의무 부모교육 실시
  - 부모교육을 양육수당 신청 자격조건에 포함시켜 양육수당을 받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부모교육을 받도록 한다. 기관에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사유를 파악하고 지자체별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

## ●● 시행기관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안전 지킴이 교육 및 관리 실시
- 양육수당 앱-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자체 사회복지과 및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신청에 대한 관리 진행

# 아동 존중은 건강한 사회의 첫걸음

정책영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 사업의 제안 배경

- 늘어나는 아동학대 비율에 따라 교육기관 종사자, 부모들의 아동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 학대 발생의 경우 아이의 신체/정신/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혹은 유기, 방임 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아동존중의 결여로 발생함.
  -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은 근본적인 아동존중 방법,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건수가 매체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지속적인 유아존중, 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현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1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아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과업을 대신 수행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생각을 지지하는 등 아동존중에 반하거나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지니는 점을 보여 자칫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지닌 학부모
  - 우리 아이를 위한 권리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음.
  -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 존중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음.
-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 아동의 권리, 존중, 학대 예방에 대한 재인식 및 교육이 필요함.
  - 교육기관 내 아동의 권리, 학대예방에 관한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음.

- 시·도 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아이 존중 챌린지/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신문, 지역 온라인 카페, 오프라인 매장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 학대 예방을 돕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
  - 지자체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보.교육기관 내 존중챌린지에 관심을 가지고 독려할 수 있어야 함.

### ●● 사업의 지원 내용

- 아동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이야기(교육기관 내 게시, 신문, 홍보영상으로 제작 - 경남뉴스 혹은 대표 지역 카페 이용)
  - 진정한 권리를 무엇인가?/아동학대가 이후 우리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은?권리, 존중이 없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우리 사회는?
- 지자체 내 (아이존중팀) 개설
  - 아이들에게 학대예방, 권리존중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찾아가는 인형극, 언제나 열린 상담소 등)
- 존중 챌린지 실시
  - 아동 존중,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 만들기/부스 등을 설치하여 학부모에게 관련한 내용 알리기
  - 교육기관 내 학부모, 교사가 진행한 아동 존중 사례를 작성하여 소리함에 넣거나 지역 온라인 카페에 글 올리기 등(기간 명시)
  - 누구나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아동 존중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인식 확대
  - 아동 존중 활동에 참여한 후 챌린지와 관련한 마크를 제작하여 텀블러, 손수건, बै지 등 제공하기
  - SNS 활용을 통해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련 마크를 업로드하여 인증하며 자연스럽게 아동 존중캠페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하기
-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존중/아동 학대 예방 챌린지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동 존중 기관' 마크를 교육기관에 제공하거나 '아이를 존중하는 학부모에게 드리는 감사편지'를 각 가정에 전하여 활동 참여에 대한 고마움 전달하기

### ●● 사업의 차별성

- SNS를 활용하여 아이 존중 챌린지 진행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를 이용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간절함.
- 챌린지에 참여하는 지역 내 학부모들 뿐 아니라 지역 신문, 뉴스 등을 통해 방송되는 존중챌린지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아동 존중,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음.
-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 시행
  - 교육기관 내에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보육/유아교육기관 외에 더 나아가 초, 중, 고등학교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아동 학대 예방의 기본이 되는 아이 존중의 중요성 인식
  - 아이의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교직원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기존의 교육이 아닌 실제 참여를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음.
  -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음.
- 보육/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 대중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모가 일상생활 속 아동 존중을 실천했다는 데 성취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 아동 존중팀 개설을 통해 '아동존중'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 혹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팀 개설을 통한 기타 아이디어 확보 가능
- 지자체에서 현수막, 홍보, 지역신문, 지역카페 등을 활용한 참여 독려하기
  - 민간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챌린지에 대해 인식하며 더 나아가 아이가 가장 놀기 좋은 지역, 존중받은 도시 등의 이미지를 함께 내세울 수 있음.

### ●● 시행기관

- 어린이집/유치원/지자체 등
  -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의 도움을 통해 방송, 신문 등을 활용하여 사업 '존중 챌린지' 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지자체 내에서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지속성을 지닌다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논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확장 시킬 수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내실화 방안

정책영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 사업의 제안 배경

- 기관 및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발생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지속으로 부모들의 불안감 증대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시 폐쇄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결 어려움
- 제도 및 법 개정의 필요성
  - 기관 및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시 법적 기준 강화
  - 아동학대 사전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사회적 연대 강화
  -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의 건강지원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
  -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철저
  - 교사들의 교육환경 개선
- 0~7세의 자녀를 둔 가정(조부모 포함)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반드시 필요
  - 아동학대 관련 예산지원 필요
- 지자체 및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직원
  -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의 빠른 대처 방안 필요
  -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의 협조 반드시 필요

### ●● 사업의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직원 연수비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직원 연 2회 아동학대 예방 필수 연수
  - 온라인 연수와 같은 형식적 연수가 아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 연수
  - 법원 판례 및 아동학대 발생 사례 구체적 처벌 규정 인식
- 지자체 및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 지자체 및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합동 연수 및 대응체계 마련
  - 아동학대 예방 공무원 승진 가산점 및 혜택 부여
- 아동학대 발생 가정 예산지원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시 실제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에게 예산 지원

### ●● 사업의 차별성

- 형식적 교육에서 실질적 교육으로 기존 아동학대 예방 연수는 온라인 연수로 시간 채우기에 급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적인 연수로 인한 인식 개선
  - 아동학대 발생 시 그에 따른 처벌 및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함
- 아동을 위한 실질적 예산 지원
  -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의 정서적 및 신체적 안정을 취해야 함.
  -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들의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의 부정수급 방지

### ●● 사업의 기대 효과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 개선으로 인한 안전한 교육환경 증진
  - 아이들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구축
  - 어린 유아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 '지자체, 경찰서, 가정'의 긴밀한 연계로 아동학대 예방 환경 구축
  - 아동학대 발생 시 빠른 대처로 중대 아동학대 예방
  -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개선

## ●● 시행기관

- 지자체(구청 보육 담당부서)
- 교육청(학교폭력 예방부서)
- 경찰서(아동학대 예방 관련 부서)
- 지역 아동학대 예방센터

# 아동 보호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 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지금 조성 방안

정책영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 사업의 제안 배경

- 최근 들어 방송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 심각성 보도
  - TV 뉴스나 신문기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보도에 따른 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기피 현상으로 인해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과 이에 따른 우수인력손실에 따른 국가적 피해
  - 아동학대로 인한 가정양육 부모가 증가되고 있고, 이로써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한편, 재취업의 기회 급격히 감소
- 조부모, 외조부모 등에게 육아 전가로 인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저하
  - 육아는 어르신들에게는 노동이므로 건강과 직결- 사회 문제
- 아동학대 가정에서 발생 예방 방지
  -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제도
  -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자에게 승진 시 혜택 부여 등
- 아동복지기금 조성 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제공
  - 아동관련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 지방자치단체 지방화폐 사용 시
- 보육교사 근무여건의 열악
  - 오전 당직, 오후 당직으로 불가피한 열악한 근무조건
  - 잦은 이직, 경력단절
- 급격한 저출산 현상과 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취원 기피에 따른 어린이집 정원 미달 현상으로 폐원 어린이집 속출

### ●● 사업의 지원 대상

- 부모 등 보호자
-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 영유아

### ●● 사업의 지원 내용

-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 제출 인센티브 제공  
예(유급연차 사용 등 인사고가 반영 등)
- 보호자 보육교사 등 아동관련 신용카드 결제 시 아동복지 기금으로 포인트 적립
-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급여체계 마련으로 사기진작
  -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 환경조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간소화
  - 평가제, 열린 어린이집, 공공형 선정 등으로 문서업무 과다
  -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필요

### ●● 사업의 차별성

- 보육교사 아동 학대 예방교육 의무 추가 **보호자도 의무교육 실시**
  - 아동의 보호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실시 제도마련
- **신용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후 그 기금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지원 됨.**
-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본보육, 연장보육과 차별성
  - 2020년 보육사업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어 담임교사가 오후 4시30~5시까지 만 보육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육교사 근무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음.
  - 각종 서류 작성 등 연장보육이 실시되기 전이나 똑같음.
-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적인 보육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감.

## ●● 사업의 기대 효과

- 아동학대의 감소
- 보호자 의무교육 실시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 기금마련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및 피해아동 일상생활 으로의 회복
- 맞벌이 가정의 육아 문제 해결
  - 많은 여성이 육아문제 해결로 질 높은 삶 추구 행복권 보장
  - 국가 경제력에도 도움
- 전국적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 보육교사들의 업무 가중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로 보육의 질 향상
  - 어린이집 입소 원아 증가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정비 법 마련
  -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정원 확충
  - 보육교사 정원 확충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 고용노동부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자 인사제도 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방화폐 포인트 적립 체계화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대학 등 보육교사 양성기관
  - 아동 인권 교육 철저 시행

# 함께하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 추구 (어린이집과 부모연계)

정책영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 사업의 제안 배경

- 영유아의 안전한 환경 구축
  - 영유아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내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가정 내에서의 안전성 구축
- 보육교사(원장 및 보육교직원 포함)의 안전한 환경 구축
  - 보육교사(원장 및 보육교직원 포함)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육 및 교육 철학을 갖춰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구축
- 주 양육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 포함)의 인식 개선
  - 다양한 형태의 양육자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영유아를 존중하며 보육교사(원장 및 보육교직원 포함)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자 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보조교사 포함)
  - 현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 반별 1인 보조교사 확보로 긍정적 상호 작용 실시로 교사와 영유아간 부정적 행위 근절함. 이에 따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개인적 자질 향상 및 신뢰감 조성
- 가정내 다양한 양육자(모든 보호자)
  - 주 양육자 및 보조 양육자(조부모 및 도우미 등)의 일관된 양육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마련 및 강화(함께 교육 참여 등)
  - 어린이집과의 소통 일관성 유지 및 가정 내 문제 해결 방안(양육자 간)마련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관련 기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문가 배치(지자체,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기관 등)
  - 어린이집 근무 경험자(최소 3년 이상)를 바탕으로 보조 인력 배치 증강

### ●● 사업의 지원 내용

- 원장 및 보육교사(모든 보육교직원 포함)
  - 아동학대 관련 법령 교육 강화(핵심 요지 - 어린이집 관련 법령 중심)
  - 보육현장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교육 필요(공감대 형성)
  - 사고 발생 시 응대 요령(책임감 있는 태도 등 대처 방안)
- 가정 내 다양한 양육자(모든 보호자)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cctv 열람 관련 교육 의무화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존중 강화 교육
- 관련 기관
  - \* 학부모에 의한 사고 접수 시 어린이집 상황 충분히 파악 후 대응 필요
  -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문가 : 기관 일원화로 빠른 대처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 근무 경험자(최소 3년 이상)를 바탕으로 보조 인력 배치 증강

### ●● 사업의 차별성

-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해결
  - 아동학대 고소인(학부모 등)의 책임성 강화로 무혐의 등 처분 될 경우 벌금형 이상 처벌 강화 필요  
예시) 아동학대 피의자 보육교사 아버지의 몇 년간 노력으로 무혐의 처벌 받은 사례로 볼 때 어린이집과 한 가정의 파탄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함.
  - 현재 무혐의 처벌 등 사례에 보면 고소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매우 미약함.
- 보육교직원 아동 학대 예방교육 현실화
  - 의무적으로 모든 보육교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현장 사례 및 현장 적응 방안 등이 중시되어 교육 내용 개편 필요

- 양육자 교육 의무화
  - 년 1회 이상 교육 이수증(수료증) 제출 필요.
  - 교육내용 : 현장 이해도와 신고 전 자세 등 인식 개선 내용 필요

### ●● 사업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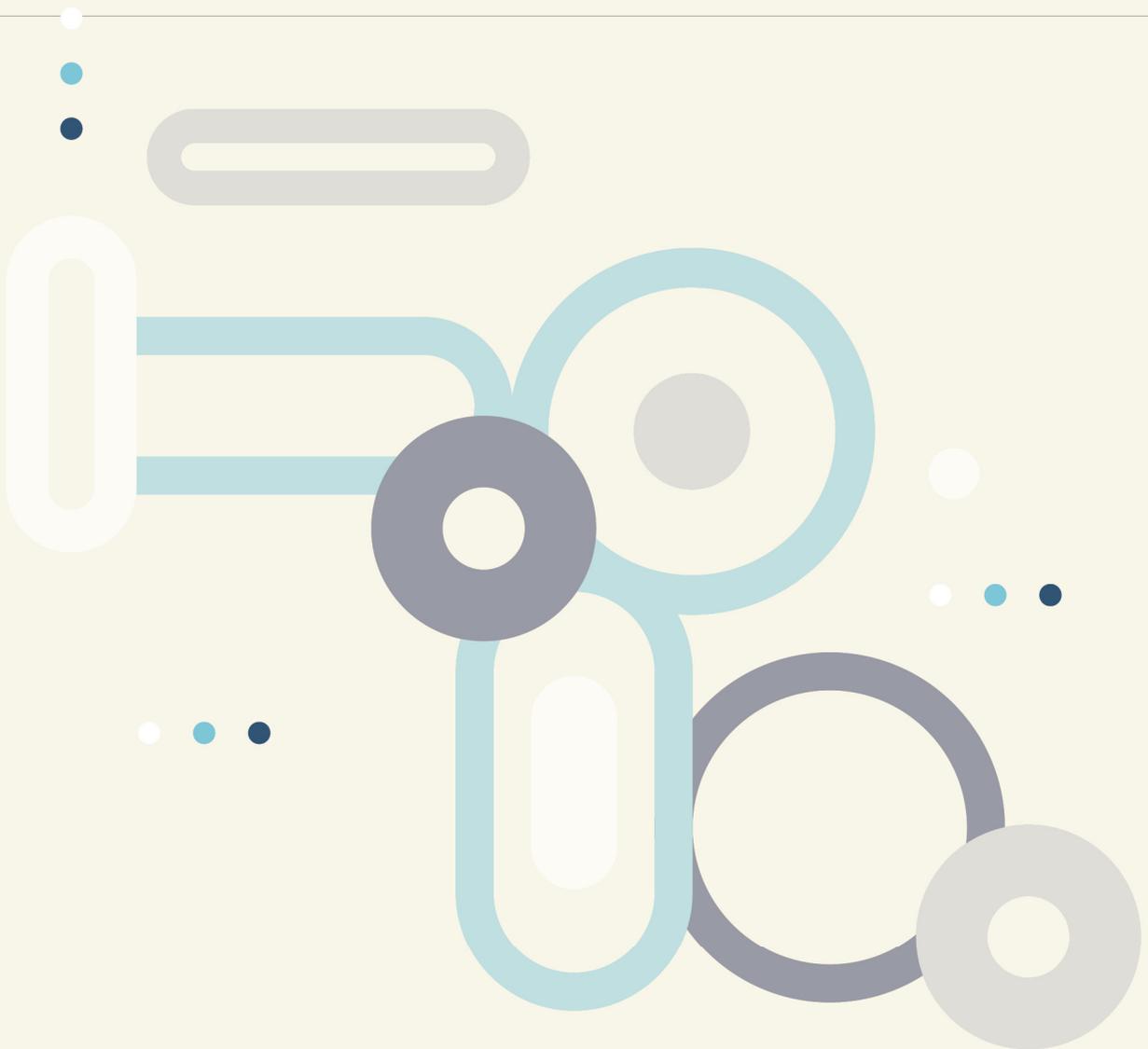
- 사회적 인식 제고
  - 어린이집 위상을 높이고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생활 하는 곳임을 인식
  - 단순 보육하는 곳이 아닌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표준보육과정)을 목표로 가정과 함께 노력하는 곳임을 인식하고 부모(양육자)의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추고자 함.
- 보육현장 및 주 양육자의 영유아 권리 존중 인식의 긍정적 변화
  -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에서 중시하는 영유아 놀이 중심 교육에 적합한 환경 마련
  - 보육교사와 학부모간 존중하는 마음이 신뢰도를 높이고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됨.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첫째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절(인구수 감소 및 초등학교 교사 대 학생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
  - 둘째 : 반별 보조교사 배치 필요
    - 현재 보조교사 배치를 주임 급 비담임 교사“정교사”를 배치하여 책임감 있고 근무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셋째 : 채용 관련 현“육종지등”에서 자체 구인 구직 하는 형태는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리(시스템 구축)
    - \* 방법 : 구직자 - 사전 검토 과정 필요
    - 현장-구인 신청
    -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적합자 열람 할 수 있도록 공시 후 채용하는 방법 등(국공립 어린이집)
- 한국보육진흥원
  - 첫째 : 자격증 발급 시 교사 자질 및 기본 인성 파악 하는 단계 마련
  - 둘째 : 자격 부여 전 별도의 교육 이수 및 인성 검사 등 강화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 9

## 건강지원



#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 (마음건강 프로젝트)

정책영역

건강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취업 여성은 물론 전업 주부들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이 늘어나고 육아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계속되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양육자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가정의 경우 부모의 삶의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나아가서는 아동 학대나 통제 등 부정적인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어린이집은 재원중인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4)를 진행하였고, 10월에 있을 2학기 학부모 상담 진행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능력감(유능감)과, 사회적지지 정도(고립)가 위험 수준으로 나온 양육자가 대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주기적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시기 별 아동의 과업과 발달 단계 이해, 개별 아동의 특성 이해하기 등 부모 유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으로부터 지지받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 본인이 우울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검사 이후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의 보호자

### ●● 사업의 지원 내용

-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는 1년에 한 번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플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소견을 듣고 결과 통보서를 발부받는다. 영유아가 발달시기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질환이 있는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검진에 참여하고 있다.

부모 됨이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임신과 출생 이후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학습기회의 부재와 이로 인한 자녀 돌보기의 어려움은 육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육아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두 집단의 건강검진이 모두 중요함에도 우리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의 힘듦이나 양육스트레스에는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이나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볼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접근성과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부모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울과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였으나, 다가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거나, 선뜻 먼저 찾아가기 어려웠던 부모 또한 마음 건강의 상황을 진단받고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본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은 부모의 건강한 심리, 정서 상태의 중요성을 느끼며 본 사업을 제안한다.

-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에 따른 수준별 대책을 지원한다.
  - 1단계(매우 좋음) / 2단계(좋음) / 3단계(경계) / 4단계(위험) / 5단계(매우 위험)
  - 3단계(경계)결과를 받은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각 관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가 입회하에 부모자조모임(ZOOM)를 지원한다.  
(각 구별, 자녀의 연령 별로 소모임을 구성하며 육아 전문가가 그 시기 영유아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원하고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해 함께 논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행 중인 다양한 부모 교육의 참여를 권장 할 수 있다.)
  - 4단계(위험)~5단계(매우 위험)결과를 받은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양육자 대상으로 전문가와 1:1 심리상담(ZOOM)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가와 1:1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 이후에도 사후 활동으로 여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중인 '행복한 부모 되기',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아직은 낯선 이름, 엄마' 등의 교육과 함께 진행 할 수 있다.)

### ●● 사업의 차별성

- 각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사설 상담센터에서 전화, ZOOM을 통하여 비대면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관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발생이라는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며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이 기존 다양한 사업들과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한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정신건강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효과
  -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양육자들끼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을 통한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감정이 과열되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다.
  - 부모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며 육아 스트레스 완화와 행복한 부모 됨을 경험 할 수 있다.
  - 육아스트레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 ●●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녀의 영유아검진 안내시기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함께 안내하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육스트레스 3단계 결과를 받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자조모임(ZOOM) 지원 및 다양한 부모교육의 참여 권장
- 심리상담 지원센터
  - 양육스트레스 4,5단계 결과를 받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1:1 심리상담(ZOOM) 서비스 지원

# 건강지원(응원해! 도전해!)

정책영역

건강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영유아들이 얼마나 약을 먹는가? 에 대한 조사 후 대처방안 모색
  - 원아들이 등원할 때 가방에 약을 넣어가지고 오는데 투약의뢰서를 살펴보다가 '우리 원아들이 얼마나 약을 먹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약을 먹는 원아들의 수를 조사하여보니 투약 의뢰서가 없는 날이 매우 적었다. 일반 약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까지 포함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육아정책 제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 표1 | 2021년 투약 실행일자

월	1	2	3	4	5	6	7	8	9
보육일수 (월~금)	20	18	22	22	19	22	22	22	13
투약일수	17	13	16	20	17	21	18	15	12
투약 없는 날	3	5	6	2	2	1	4	7	1

\*7월, 8월은 자율등원 주간과 코로나19 긴급보육 주간이 있었음

\*정원 104명을 대상으로 조사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0세~만5세)
  - 원 실마다 약통이 있고 선생님은 투약보고서를 매일 작성한다. 약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빈약통이 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 환경을 제공한다.
- 부모&양육자
  - 부모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갖춰야 할 것과 마음가짐을 알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 ●● 사업의 지원 내용

- 부모&양육자에게 부모교육 제공(5회기 기준 단계별 지원)
  - ▶ 1회기 부모교육: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 강의
  - ▶ 2회기 부모교육: 면역력 키우는 방법→신선한 음식 제공→에너지원 공급→성장 발달에 필요한 운동→ 마음 건강 챙김 등
  - ▶ 3회기 부모교육(다음 주제 중 선택)
    1.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건강을 지킨다.
    2.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
    3. 오염된 환경, 독성 물질에 둘러싸여 있는 음식물
    4. 무심코 먹인 음식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
  - ▶ 4회기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1. 화학첨가물이 없는 건강한 음식 만들기  
(견과류 아이스크림, 고추장 만들기, 새콤달콤 마늘 장아찌 등)
    2. 영·유아에게 자연에서 놀이하며 도전할 기회 제공  
(자연이 주는 건강한 삶 경험하기-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햇빛, 바람, 꽃, 흙, 나무, 모래, 물 등)
  - ▶ 5회기 총평: 마음 다지기→건강한 환경 제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 사업의 차별성

- 가정에서 세상(자연)으로
  - 현재 각 기관에서 숲 체험, 먹거리, 건강한 식습관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교육의 필요성이 부모/양육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미흡하다. 그럼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짐은 자명하다. 본 사업은 영·유아가 유년기에는 부모의 관리에 의해 건강한 삶을 익히고 유지하고 배우기 때문에 '왜?' 라는 의문과 함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먼저 이론과 방법을 알고 자녀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인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알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배운다.
- 인간이 만든 과학 발전이 자연과 인간을 위협함을 알고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도 위협하지 않도록 함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배운다.

-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힌다.

### ●● 시행기관

- 1안 공공기관-본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와 부모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행
- 2안 정부 지원 사업으로 주관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정책영역

건강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현대사회 영유아들이 앓고 있는 환경 관련 질환의 완화와 자연치유에 초점을 둔 맞춤형 보육 서비스제공
  - 최근 환경 관련 질환(아토피 및 천식, 새집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고충과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계한 질환 완화와 자연 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접목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과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책
  -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과밀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해 농어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어린이집 또한 감소하는 원아수와 운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있다. 따라서 자연치유형 어린이집에 대한 needs가 있는 도시 거주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를 유인하고자 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환경질환의 완화와 자연치유가 필요한 영유아
  -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등 각종 환경 관련 질환을 앓고 있어 증상의 개선을 요하는 영유아.
  - 농어촌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과 쉼이 필요한 영유아
- 환경질환을 가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영유아 환경질환 증상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학부모.
  - 각종 도시 거주 문제로 인해 자녀들과 시골 살이 계획하고 있는 가정

## ●● 사업의 지원 내용

- 환경질환 안심 급 간식 제공 어린이집
  - 환경질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전문 영양사가 제공하는 '건강 식단' 제공
  - 급 간식 제공 시 친환경 소재, 자연식 식자재 사용
  - 급 간식 제공 시 무 첨가물, 무 조미료로 조리한 음식 제공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자연환경 제공 어린이집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천연소재 놀이 환경 및 놀잇감 제공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자연환경(등산로, 황토길, 자연 체험장 등) 제공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정서 치유형 프로그램 제공
  - 환경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완화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 대상 부모참여 치유형 프로그램 제공
  - 환경질환 치유 관련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주기적이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 환경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로 인한 고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개별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인근 주거 정보 제공 등 정착 지원
  -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
  -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하여 성공적 농어촌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농업정보제공 등

## ●● 사업의 차별성

- 환경질환의 완화와 자연치유를 의료영역이 아닌 보육영역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급 간식은 일반영유아 대상으로,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급 간식 제공으로 기존 일반 급간식과 차별화
  -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의 영유아, 놀이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되, 환경질환 완화와 정서적 지원을 도울 수 있는 별도 치유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
  - 일반적인 보육실과 놀이터가 제공되는 보육환경이 아닌 환경질환 완화와 자연치유를 도울 수 있는 소재와 환경으로 구성된 보육환경과 자연환경 제공의 차별화

## ●●● 사업의 기대 효과

- 현대 사회의 영유아 환경질환 문제 해결을 의료영역이 아닌 보육(생활)영역에서 도움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영유아의 환경질환 완화와 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고충을 덜어줌.
- 저출산 문제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과 어린이집 원아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보육 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예방
  - 농어촌 지역 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도시나 농어촌지역이나 공평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 나아가 농어촌 지역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발전에 따른 활성화를 도움.
  - 농어촌 지역에 영유아들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지역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도움.
  - 귀농귀촌 및 정착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인구유입효과 기대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지자체(보육담당 실과, 귀농귀촌센터, 취업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 지자체 보건소 및 환경질환 전문병원
- 관내 한의원 및 자연치유전문가 등

#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예방·치료 프로그램 : “요술항아리에 담긴 무지개 언어”

정책영역

건강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사회적 환경과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사례 증가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언어와 비언어적 소통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통해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정서와 언어가 발달되는 시기에 부모의 돌봄 부재(맞벌이, 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가족구조의 변화(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 등)로 외동자녀가 증가하였고, 가정 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본 사업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방 및 치료효과 상승
  -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영유아발달검사를 통해 상당기간이 흐른 후 뒤늦게 자녀의 언어발달지연 상태를 인지하게 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아동과 부모가 단독적으로 치료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주변에 또래 자녀를 둔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그리고 지역 내 전문치료기관이 협력하여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음으로써 해당 아동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
  -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 :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
  - 일반인 대상자 : 언어발달 시기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

-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 ●● 사업의 지원 내용

-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아동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과정: 언어발달 시기에 영유아 아동과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언어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해당 아동과 올바르게 소통하는 상황적, 언어적·비언어적 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지원 대상자 모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 중급과정: 가정과 보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및 또래 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유치원 교사가 해당 아동과 함께 놀이하고 학습하며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예: 놀이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사회성 치료, 행동치료, 양육·보육 코칭 등의 치료기법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아동)를 위한 전문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고급과정: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상황에 맞춰 치료단계를 파악하고 지역 내 전문치료기관(언어치료센터, 발달심리학습센터,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으로 언어치료를 진행함.

※ 교육에 전반적인 내용은 현장교육 및 온라인 플랫폼(ZOOM, 동영상, 강의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시 수시로 학습 및 정보 습득이 가능하도록 진행함.

## ●● 사업의 차별성

- 사업지원의 대상자 확대
  - 기존에 사업은 언어발달지연 영유아를 둔 자녀와 부모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본 사업은 그 대상에 범위를 확대하여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아동 및 부모뿐만 아니라 언어발달 시기에 영유아 아동과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유치원 교사까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의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치료기관 서비스 연계
  -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초부터 고급 교육과정까지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이며, 집중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문치료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심층적인 치료까지 가능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최소화
  - 영유아 아동과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유치원 교사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필요시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수강할 수 있음.

### ●●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예방효과 상승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영유아 아동에 의사소통 과정과 언어발달 상황을 부모와 보육교사가 직접관찰이 가능하게 되고,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상태를 조기발견 및 예방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치료효과 상승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아동)는 지역 내 언어발달 전문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상황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 감소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부모)는 자녀의 언어발달치료 과정 중 부모가 느끼는 치료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아동의 사회적응 효과 상승
  - 언어발달 과정이 부진한 장애아동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또래 영유아 아동을 둔 일반인 대상자(아동 및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유치원 교사가 함께 해당 아동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언어발달지연 영유아 아동의 사회적응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 ●● 시행기관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상위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세부사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위기관
  -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유치원, 온라인 플랫폼, 언어치료센터, 발달심리학습센터, 공공의료기관(의료원, 대학병원 등)

# 코로나19 및 이후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한 보육공백 없애기(지속적인 보육)

정책영역

건강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코로나19로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폐쇄
  - 코로나19의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 발생일자에서 어린이집 2주 폐쇄
  - 코로나19의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 발생일자에서 유치원 1일 폐쇄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자가 격리조치
  - 확진자 발생 또는 밀접접촉의 경우 갑작스러운 하원조치와 더불어 보호자1인 이상과 함께 2주 이상 격리 조치
- 어린이집 폐쇄 또는 격리조치로 인하여 부모 이외에 돌봄 노동이 가능한 인력이 없는 경우(주로 조부모) 부모 중 1인 또는 한 부모가정이 돌봄 노동
  - 정규직·상용직의 고용형태와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혜택이 가능한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 및 정직
  - 감염병 상황에서 가정 내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실직)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소 또는 축소
  - 경제활동 위축과 더불어 돌봄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노동의 질 저하 또는 (경력단절)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할 위기사건 발생

## ●● 사업의 지원 대상

- 코로나19 또는 기타 감염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인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 또는 자가 격리로 인한 보육시설 부재에 있는 영유아(확진자 발생 이후 2주)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부재와 가정 내 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가족원이 부재한 가정

- 부모 또는 양육자의 감염상태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
- 부모 또는 전담 양육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감염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자
  - 전담양육자의 노동시간 및 고용형태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전담양육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질병(건강)상태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지 않은 자

### ●● 사업의 지원 내용

- 기존에 코로나와 같은 유사한 감염병 상황이 없었고, 감염병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육공백에 대한 지침 마련
  - 감염병에 대하여 공백 없는 보육을 위하여 위한 감염병 관리 지침 마련
  - 감염병에 대하여 공백 없는 보육을 위하여 위한 보육지침 마련
  - 감염병에 대하여 공백 없는 보육을 위하여 위한 민관 네트워크 및 공동 협력체제 마련
-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임시보육시설 및 임시보육체제 마련
  - 감염병에 대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폐쇄로 인한 가정 보육이 가능한 환경 제공
  - 어린이집 폐쇄로 인하여 임시 시설 및 대체 시설 마련
  - 어린이집 폐쇄로 인하여 임시 대체 인력 공급
- 돌봄 부재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 강화
  -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한 돌봄(보육) 전략 체제
  -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돌봄 체제 운영(돌봄 시설, 돌봄 인력 및 가정 내 돌봄 등 지원)

### ●● 사업의 차별성

- 감염병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약한 상황
  - 향후 감염병 및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체제 모색
  - 향후 감염병 및 유사 상황에 대한 보육서비스 유지 및 강화
- 감염병 및 위기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직, 고용의 질 저하 및 비경제활동인구 전환 방지
  - 감염병 상황에서 보육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스트레스 경감
  - 감염병 상황에서 보육 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보육체제 구축

## ●● 사업의 기대 효과

- 코로나19 및 향후 기타 감염병 상황에서 보육 및 교육 공백 대응
  - 보육 및 교육 공백을 감소시킴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유지
  - 보육 및 교육 공백을 감소시킴으로써 영유아의 교육 지속
-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상황에서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의 지원
  - 부모 및 양육자의 감염병 상황에 의한 경제활동 감소 및 경제활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최소화
  - 부모 및 양육자의 감염 등 질병상황에서 영유아아동의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환경 제공

## ●● 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협업적 네트워크 구성

#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

정책영역

건강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독일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면 선물꾸러미를 준다고 한다.
  -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도록 동화책을 선물한다.
  - 기타 물컵, 바디로션 등을 함께 선물한다.



-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1년 기준 OECD 주요국 월평균 독서량은 미국 6.6, 일본 6.1, 프랑스 5.9, 독일, 영국, 중국 2.6, 대한민국 0.8 순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 독서량은 이보다 더 감소 추세이다. 다양한 영상이나 콘텐츠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없는 살림에 도둑맞은 듯 한 느낌이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이다.

### | 우리나라 연간 성인 1인당 독서량 변화 |

(종이책 기준)

연도	2015	2017	2019
일반성인	9.1	8.3	6.1
독서자기준	14	13.8	1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국민독서실태조사)

종이책 기준으로 현재 월평균 0.5권인 셈이다. 오디오북, 전자책을 포함해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독서 장애요인으로 과거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1위였지만, 최근 조사한 결과는 다른 콘텐츠로 대체해서 소비한다는 항목이 1위로 조사됐다.

요즘 다양한 영상과 각종 콘텐츠들이 넘쳐나지만 언론과 영상에 너무 매몰되면 위태로워진다. 영상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알고리즘이나 편향된 언론에 대중들은 통제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획일화되고 사고력, 창의성은 사라진다.

노벨상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척도 중 하나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도 1명밖에 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자 현황을 국가별로 확인해 보면 선진국이자 독서량이 높은 나라가 확연히 많다.

[출처] 우리나라 연간 성인 독서량 변화|작성자 힌스틸.

-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0회(구강검진 3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이다.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크는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진 시기를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세분화한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어린이  
-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사업의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어린이에게 책을 선물한다.

-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건강검진 시 각 시기별 연령대에 맞는 책을 선물한다.
- 책 첫 페이지에 아이의 이름을 적은 응원글을 남긴다.  
예: 주경이가 몸도 건강하게 자라고 지식도 건강하게 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
-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문자, 카톡, 이메일로 검진 기관에 보내오면 사진을 인화하여 게시판에 게시한다(추가 선물 증정).

### ●● 사업의 차별성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하고 떨리는 경험이다.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
  - 8번의 영유아 검진 때마다 책을 선물 받게 되면 책이 정말 특별하다는 감정을 받게 되고 평생 간직하게 된다.
  - 어릴 때 받은 감정이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읽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 ●●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유아 검진 때 받은 책은 특별한 날 받은 책으로 평생 추억이 된다.
  -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읽게 된다.
  - 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 반복적인 책 선물은 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 어린이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많지만 꼭 짚어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 검진 때 게시판에 걸려있는 책을 선물 받고 좋아하는 어린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나도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한 어린이는 평생 책을 가까이하게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 하면 더 삭막해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 가끔 내가 낳은 아이가 나중에 차가운 인공지능 기계, 로봇들 사이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안타깝다. 그리고 미래에는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히 예측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시대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힘, 창의성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힘과 경쟁력을 키워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그나마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타국에 억압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힘을 느끼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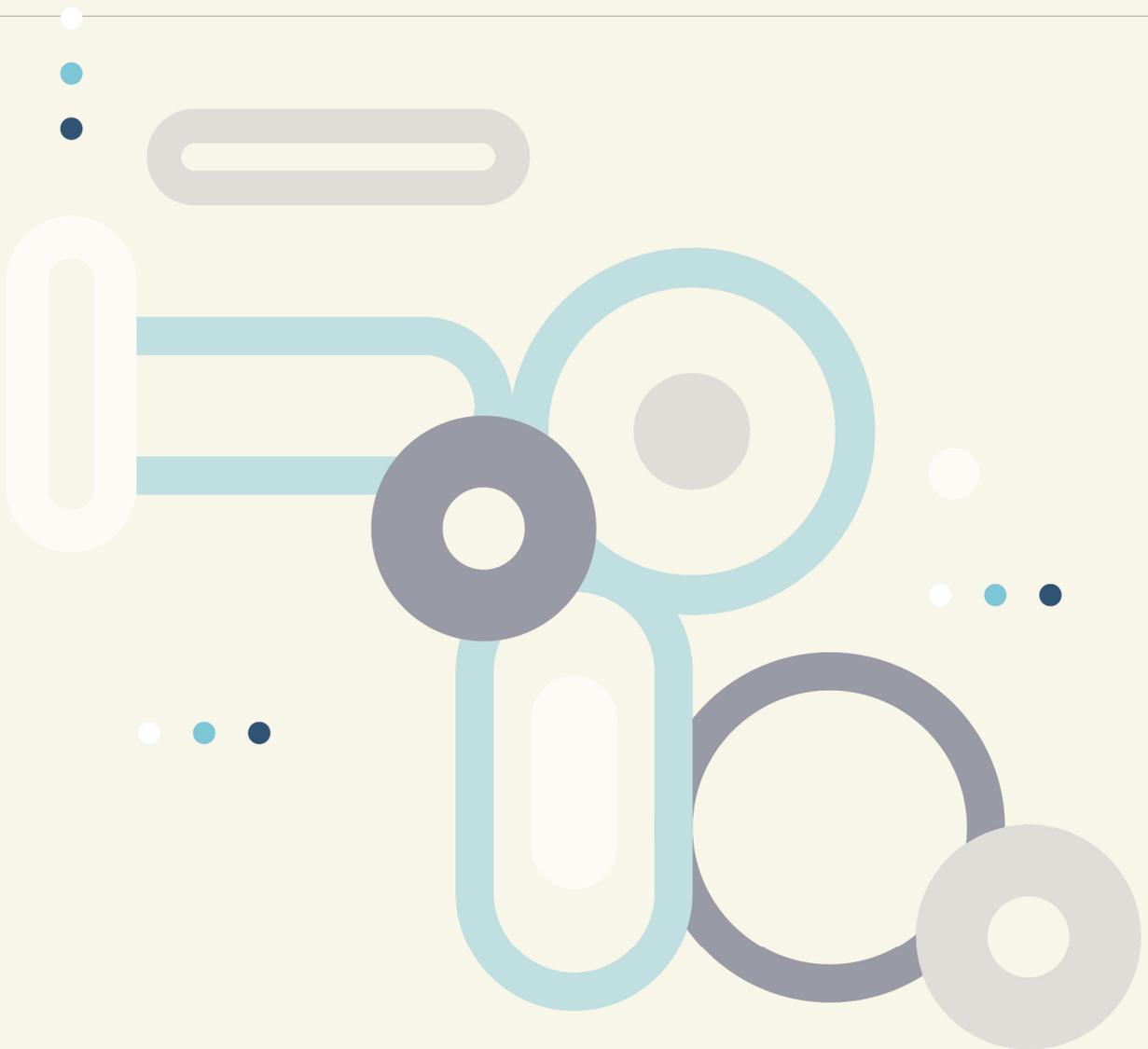
[출처] 우리나라 연간 성인 독서량 변화|작성자 힌스틸.

### ●● 시행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육아정책연구소

#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10

초등지원



# 초등돌봄과 보육의 연결

정책영역

초등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초등돌봄과 보육연계
  - 어린이집 졸업 후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에 대한 야간 돌봄 확대  
어린이집 연장보육, 야간연장 시간 (17:00~21:30)
  - 학교 돌봄 교실의 시간적 한계 극복 (돌봄 교실 19시 이전 종료)
  - 기존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 거점형 야간보육을 이용했던 아동 중심으로 운영

## ●● 사업의 지원 대상

- 야간보육료 지원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 사업의 지원 내용

- 초등 저학년 (1~2학년) 야간보육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야간 보육료 지원
  - 급간식비 책정 후 부모부담 보육료와 같이 부모부담으로 급간식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시간동안 적용할 수 있는 안전공제회 상해보험 가입기준 변경

- 보조인력 지원
  - 어린이집 인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까지 등원 보조인력 확대(거점형 어린이집 지원 보육도우미 역할과 같은 pick up 서비스 인력지원)
  - 주교사의 야간보육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인력 지원
- 초등 저학년 (1~2학년) 야간보육 프로그램 개발
  - 보육서비스를 적용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 사업의 차별성

-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료 지원이 어려울 경우 부모부담보육료로 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시설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기존 거점형 어린이집 제도를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확대 적용
  - 서울시에서 2020년도 거점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
  -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이용률 상승 기대
- 기존 거점형 어린이집을 확대함으로 추가적 인건비 지원은 불필요

### ●● 사업의 기대 효과

-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아동방임 예방
  - 야간보육을 하던 아동이 졸업한 후 학원을 여기저기 이동하며 보육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까지 보육 서비스 필요
  - 저소득 지역일수록 방임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보육과 교육의 연계의 단초를 마련
  -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보육의 대상이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보육과 교육의 단절적 관계를 극복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유보통합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초등학교의 돌봄 시간 연장으로 인한 부담경감
  - 초등돌봄 시간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인프라 사용 부담(늦은 시간까지 학교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교육부 교육청과 연계 지원

# 비대면 시기, 아이들의 활동을 넓히는 e방과후 교실 운영

정책영역

초등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아이들(초등생)의 활동 범위의 축소
  - 관련기관이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 프로그램의 취소
  - 비대면 확산으로 방과후 교실 축소 운영, 방과 후 주제 축소
  - 자신의 관심분야, 미래분야에 대한 직간접 체험기회의 제한이나 축소의 아쉬움
- 디지털시대, 뉴노멀시대 맞춤형 교실운영의 필요
  - 학교에서는 방과 후 과제로 운영되지 않지만, 나에게 맞는 관심분야를 접하고
  - 비록 비대면시기이지만 마치 현실적인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
  - 초등생들이 방과 후, 학원수업 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개개인별 맞춤형 돌봄 교실이 있었으면 함.

## ●● 사업의 지원 대상

- 초등학생
  - 학교 방과 후 교실 참여가 힘든 초등학생
  - 학교 방과 후 수업 중 자신이 원하는 항목(분야)이 없는 초등학생
  - 코로나 시기,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접하기가 쉽지 않는 초등학생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나에게 맞춤형 방과 후 교실을 갖고자하는 초등학생
  - 방과 후 또는 학원 수업 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는 초등학생

- 초등학교 부모
  - 비대면 시기, 관련 학원이나 방과 후를 보내기가 꺼려지는 학부모
  - 우리 아이가 원하는 분야를 마땅히 체험 및 접하기가 어려워 고민이 있는 학부모
  - 방과 후 또는 학원 수업 후 아이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학부모

### ●● 사업의 지원 내용

- 메타버스에 기반한 e방과후 교실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앞당겨진 비대면 디지털 시대, 뉴노멀시대에 맞추어진 초등학교 대상 다양한 분야의 e방과후 교실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현실감 있는 체험과 교육이 진행
  - 메타버스(Metaverse)란?
    - :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서, 대표적인 뉴노멀시대 대표 컨텐츠
    - : 기업이나 기관, 지자체 등에서 관광, 체험, 축제, 행사, 설명회,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 앞으로 그 활용성은 더욱 증가
- 초등학교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e방과후 교실 플랫폼 운영
  -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인 플랫폼 구현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화, 퀴즈형, 3D모델링 등의 새롭고 다양한 커리큘럼
  - 메타버스 활용한 e방과후 교실 구현으로 보다 더 현실적, 몰입도 증가, 교육 및 체험의 질 증대

### ●● 사업의 차별성

- 사업진행으로 인한 대상 확대
  -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체 초등학교 대상
  - 인프라 여건 관계없이 도심지역이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아이들도 손쉽게 접근
- 앞선 형태의 돌봄 및 교육형태
  - 기존의 대면, 글이나 동영상의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 직접 체험하고 구현하고 회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앞선 교육

### ●● 사업의 기대 효과

- 비대면 디지털 시대, 초등생 맞춤 돌봄 교실 효과
  - 많은 아이들이 자신에 맞는 다양한 분야를 체험, 교육
  - 방과 후, 학원수업 후 자신의 역량이나 꿈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할애
  - 오프라인 방과후 교실과 더불어 시행으로 방과후 교실의 질을 제고

### ●● 시행기관

- 교육부에서 중심으로 추진
- 해당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 협의로 각 분야 방과후 교실 운영을 동참 권고

# ‘2019 개정누리과정’이 학령기에 미치는 영향(종단 연구)

정책영역

초등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 2019 개정누리과정의 실효성

- 2019 개정누리과정이 실행되며 유아반 교사는 누리개편과정에 대한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놀이중심과정에 대한 다양한 재교육을 받고 있다. 그 외 놀이중심교육, 놀이컨설팅트, 놀이소모임, 놀이중심 공모전에도 참여하며 학부모에게도 놀이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 86호’를 살펴보면 누리과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부모는 54.0% 체감 못하는 부모는 46.0%로 나타나고 있다. 놀이중심으로 변화했을 때는 유아들의 다양한 흥미에 기반하여 폭발적인 놀이가 연계, 변형되는 영향으로 부모들에게 쉽게 체감되어야하는데 왜 54%만 인식하며 그 또한 문서의 변화가 가장 클까?
-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놀이중심’ 과정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고 있다. 놀이중심과정에 공감하고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기준 특별활동, 특성화활동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2021 서울시 기준 특별활동은 60,000원, 특성화활동은 36,3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수납한도액에 맞춰 만 3세 영어(주 3회), 체육(주 1회), 오르프(주 1회), 만 4~5세는 영어(주 3회), 체육(주 1회), 국악(주 1회)을 하며, 특성화활동은 인성프로그램(주 1회 이상), 독서프로그램(주 1회), 과학프로그램(주 1회), 한글(주 1회), 수학(주 1회)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가 원하는 특별, 특성화 활동은 유지한 채 놀이 중심을 표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변화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조기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기교육이 당연시되고 놀이만 하다가는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 51.7%(육아정책 brief 통권 제 86호)가 되기 때문은 아닐까?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자음, 모음부터 시작하지만 그 속도가 처음 익히는 학생에게는 매우 빠른 편이며 그와 동시에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문해력)하여 수 개념을 파악해야하는 수학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들은 예비학부모들은 ‘놀이중심’기관보다는 ‘학습’을 놓치지 않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개정누리과정을 수행여부에 따른 학령기 변화 중단연구
  - 특별 활동과 특성화 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시설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한 중단 연구 진행 신청자
  - 2019 개정누리과정에 온전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학교

### ●● 사업의 지원 내용

- 개정누리과정을 수행여부에 따른 학령기 변화 중단연구
  - 우리나라 현장, 실정에 맞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현장기관의 원장, 교사, 부모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봄.
  - 긴 시간 검증된 결과 아래 '2019 개정누리과정'의 실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임.
- 집단 기준
  - 실험집단 1. 교사 대 유아 비율 낮추고 놀이중심과정을 실행
  - 실험집단 2. 기존 교사 대 유아 비율로 놀이중심과정을 실행
  - 통제집단. 특성화, 특별활동을 종전대로 진행
- 각 지역에서 추적 연구를 통해 놀이 중심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일반화함.

### ●● 사업의 차별성

- 백년지대계 교육
  - 개정누리과정을 현장에 녹이는 과정은 수년을 거쳐 진행될 것임. 근본적인 미래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것만으로도 현장(원장, 교사), 실수요자(유아, 부모)는 올바른 교육 방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꾀할 것임.

### ●● 사업의 기대 효과

- 미래 사회 인재 육성
  - 영유아 발달 근거에 알맞은 교육이 진행되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찾음.
  -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인재 육성이 될 것임.

### ●● 시행기관

- 정부 부처와 대학교가 연계하여 연구

#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만족도 평가 도입

정책영역

초등지원

## ●● 사업의 제안 배경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저는 맞벌이 직장인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하게 되어 초등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딸이 초등돌봄을 이용할 때 불편하였던 것은 돌봄을 이용할 때 어떻게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온라인소통창구 또는 특이 사항 시 교사의 연락이 있었으나 초등돌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등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 학교생활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 알 수가 없었으며 현재 학교종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 학교생활 등으로 알 수는 있지만 초등돌봄에 대한 자세한 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 무척 아쉬웠습니다.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학년말 학교의 교직원등 이용 만족도 평가는 있으나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는 없었습니다.
  - 저희는 큰아이가 3학년이 되면서 초등돌봄을 이용 할 수 없었지만 1학년 입학한 동생의 입학식 날 초등돌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돌봄 선생님이 1학년 입학하는 저희 자녀에게 여름 방학 때는 3학년 누나가 있으니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초3학년 누나가 보호자가 되어 방학 때 동생을 돌보라는 것인지... 누나가 돌봄을 이용할 때 제가 일찍 퇴근하여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에도 충격이었는데... 정말 교사로서 부모님들에게도 요구하는 모습에 충격이었습니다.
  - 아이들은 돌봄을 이용하면서 늘 가기 싫다고 하며 선생님 무섭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으로 아동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 넘겨져 되는 것인지... 저희는 그해 여름은 정말 아이들끼리 가정에 있어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아이들도 불안 속에서 그 이후 방학은 아이들끼리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 아이들을 맘 편히 이용하는 돌봄 이여야 하는데 교사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이 마냥 불쌍하였습니다. 현재

는 초등5학년인 자녀이지만 현재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 ●● 사업의 지원 대상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
  - 학교 종일시스템 안에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에게 별도의 시스템 창이 필요함.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아동
  - 맞벌이 부모로 인해 아동이 수업이 끝나고 돌봄을 이용하는데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된 환경에서 시스템을 이용이 필요함.

### ●● 사업의 지원 내용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현재 학교별 학교종일등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시스템 안에 초등돌봄의 창구를 별도로 구축 또는 별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생활의 50%이상 또는 방학 때는 종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활동을 온라인시스템을 학부모가 전달 받고 교사와 긴급 시 연락 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함.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아동이 돌봄을 이용하면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맘 편히 이용하였으면 하고 이용자인 아동과 학부모의 불편사항 등을 매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초등돌봄서비스로 발전해 나아가갈 것 있음.
  - 그러므로 돌봄교사의 업무적 평가가 필요하며 교사는 자신의 업무평가가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지지와 안정된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하게 될 것임.

### ●● 사업의 차별성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초등돌봄에 대해 구체적이 시스템 도입이 없음으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초등교직원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돌봄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아동과 학부모님의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보다 나은 초등돌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 ●● 사업의 기대 효과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로 돌봄시스템의 질적 개선 충족

### ●● 시행기관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교육청,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온라인 시스템 업체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교육청,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온라인시스템 업체

##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자료집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http://www.kicce.re.kr)